

# 조선시기 제주 「神人」 기사 검토

진영일

<차례>

- I. 머리말
- II. 관찬문서
  - 1. 세종실록지리지 2. 고려사 지리지 3. 신증동국여지승람
- III. 사찬문서
  - 1. 성주고씨가전 2. 장흥고씨가승 3. 영주지
- IV. 한라산과 신선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초에 작성된 제주의 耽羅國과 三姓의 시조라고 생각되는 三神人에 관한 3종의 관찬지리지와 3종의 私撰 古文書들이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세종14년, 1432), 高麗史地理志(단종 1년, 1451), 新增東國輿地勝覽(중종 25년, 1530), 星主高氏家傳(태종 16년, 1461), 長興高氏家乘(세종 32년, 1450), 그리고 瀛洲誌(作者·年代 不明)의 6종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官撰과 私撰으로 양분하고, 재차 時系列에 따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작연대, 저작자, 지리서·문서의 특징을 검토하겠다. 또한 이들 官撰私撰 文書(이후 상술한 6종의 문서·지리지들의 약칭 필지주)에 공통된 「神人」에 관하여 그 사상적 연원을 구명해보겠다. 특히 작자와 연대가 불명한 영주지를 여타 5종 문서들과 비교 검토하여 그것이 누가

\* 제주대학교 사학과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해보겠다. 본고에서 『世宗實錄地理志』, 『高麗史』地理志 全羅道 耽羅縣條 등을 固有 書名의 부호(『』)를 빼고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등으로 작업 편의상 약칭 표기하겠다. 그리고 고려사 온라인 판(URL: <http://www.koreaa2z.com/koryo>)과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판(URL: <http://sillok.history.go.kr>)을 이용하였기에 본고에 인용된 고려사와 조선시대의 자료들은 이 두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 II. 官撰文書

### 1. 世宗實錄地理志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초 1454년(단종 2)에 발간된 본격적인 지리서이다. 그 편찬과정을 보면, 세종은 즉위 6년(1424) 11월 대제학 卞季良에게 地誌 및 州郡縣의 연혁을 撰(찬)進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이에 春秋館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어 우선 전국적으로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慶尙道地理志(1425)가 발간되었다. 이 경상도지리와 같이 발간된 나머지 7도의 지리지도 한데 모아서 편찬한 것이 新撰八道地理志(1425년 발간)이다. 그 후에 다시 22년이 지난 1454년(단종 2년) 3월에 세종실록 중에 실록지리지가 포함되어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最古의 조선 초기의 전국지리서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지리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국기 통치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1)</sup>

그런데 여기서 세종실록지리지의 撰進 연대와 찬자가 문제가 되고 있

1) 세종실록 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619-621쪽

다. 鄭杜熙(정두희)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단종 2년(1454)은 世宗實錄이 완성된 해이고, 세종실록지리지의 地理志는 이미 22년 전인 세종 14년(1432) 孟思誠·尹淮(희) 등에 의하여 편찬되어 왕에게 올려졌다. 이 지리지가 세종실록 말미에 실리게 된 세종실록지리지이다.<sup>2)</sup> 여하튼 세종실록지리지에서 三神人은 다음 같이 등장한다.

其州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兩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然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 爾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高濤 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 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王 令清出胯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蓋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sup>3)</sup>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에 포함된 부록 문서이므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책이 아니었다. 역대실록은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실록을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史官으로 하여금 史庫에서 꺼내게 하였다. 실제로 조선 초기 태종이 당시 완성된 실록을 태종이 열람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이 겨우 이루어질 정도였다. 한마디로 왕들조차 한부로 역대실록을 볼 수 없었다. 그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종실록의 부록인 세종실록지리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지리서였다.<sup>4)</sup>

2)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I)」, 『歷史學報』 69, 歷史學會, 1976), 70-71쪽.

3)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濟州牧(『全國地理志』 1, 亞細亞文化社, 1983), 517쪽.

李樹健은 한국의 姓貫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관에 관한 최초의 자료는 세종 14년(1432)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그런데 그 지리지는 다른 실록과 함께 한말까지 민간에 공개되지 않고 그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를 축략, 혼효하여 전제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 조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15세기까지 존속했던 성관의 원형이 상실되고 말았다 한다.<sup>5)</sup>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시대에는 민간이 이용할 수 없는 극비문서가 되는 셈이었다. 대신 후술할 중종 25년(1530)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민간에 보통 이용되었다. 다만 이 지리서는 고려사 지리지의 원형이 되었으므로 중요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를 후술할 고려사 지리지를 대비해 보면, ① 「紅帶紫衣使者」/「紅帶紫衣使者隨來」, ② 「而無配匹」/「然無配匹」(세종실록지리지/고려사지리지)이란 두 구절의 경미한 차이밖에 없다. 이는 두 지리서가 고려사지리지 서두에 인용된 「古記」를 원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6)</sup>

## 2. 高麗史 地理志

梁誠之가 단종 1년(1451) 편찬한 私撰 地理書<sup>7)</sup>이며, 三神人에 관한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같다. 고려사 편찬은 세종 31년(1449) 정월에

4) 鄭求福, 「역사학」(『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53-154쪽.

5) 이수진, 「족보와 양반의식」(『한국사 시민강좌』 24, 일조각, 1999), 36쪽.

6)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耽羅文化』 2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25쪽.

7) 朝鮮王朝實錄 端宗1年 10月 庚子: 世祖謂鄭麟趾曰 古有禹貢地理之制 又有周(官)官 官制之書 地理官制 代各修之 本朝宜倣古事作朝鮮都圖一件 八道各圖一件 州府郡縣各圖一件 及百官官名職事官吏之數 考古詳定 以爲國家萬世之寶 因問: 誰可任此事者乎 麟趾薦直殿梁誠之 曾修高麗史地理志 宜命此人爲之 遂以誠之掌之.

史體가 문제되어 종래의 編年體에서 새로이 紀傳體가 채택되었다. 그래서 1451년(문종 1) 8월에 김종서 등에 의하여 世家 46권, 志 39권, 年表 2권, 列傳 50권, 目錄 2권 총 139권의 고려사가 왕에게 찬진 되었다.<sup>8)</sup> 따라서 고려사 지리지는 1449년 정월~1451년 8월 중, 어느 시기에 편찬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왕에 撰進된 문종 1년(1451)을 고려사의 완성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고 고려사 지리지는 본격적인 지리서가 아니라 편찬 중에 기전체에 맞추기 위해 양성지가 대충 편집한 것 같다. 그에게는 지리지라는 방대한 자료들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와 인적 자원이 없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고려사 지리지의 三神人 기사는 양성지에 의해 앞서 세종 14년(1432)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轉寫한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삼신인 기사 고찰에서 시대가 앞선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를 당연히 사용해야지만, 그러나 둘 다 내용이 같으므로 민간이 열람할 수 있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고려사지리지를 기본 텍스트로 삼겠다. 고려사지리지에서 三神人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 從地發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 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 見紫泥封藏木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 云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且就富庶 至十五代孫高厚 高濤 昆第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 客星 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曰 稱長子 曰星主 以其動星象

8) 고려사 조(『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33-436쪽.

也 二子 曰王子 王令清出胯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 曰都內 邑號 曰耽羅 蓋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 衣帶而遣之 自此 子孫蕃盛 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又三國遺事 載海東安弘記 列九韓 毛羅居四 百濟文周王二年 拜耽羅國使者恩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註云 耽羅 耽牟羅 百濟既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普律 來降(고려사 지리지, 전라도 탐라현 조).<sup>9)</sup>

9) 『高麗史』地理志 11, 全羅道 耽羅縣條. [한글번역]: 탐라현(耽羅縣). 전라도(全羅道) 남해 바다 가운데에 있다.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태초에 사람도 생물도 없었다.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나 그 주산(主山) 「한라산」 북쪽 산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 곳이다. 첫째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둘째를 고을나(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세 사람이 인적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사냥질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살았다. 하루는 자주색 봉인한 나무상자 하나가 바다를 떠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거늘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또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따라 왔다. 석함(石函)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과 땅아지, 송아지, 오곡(五穀)의 종자(種子)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의 사신(使臣)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3명의 딸을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악신(嶽神)이 신자(神子) 세 사람을 내려보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配匹)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에 신(臣)에게 명하여 3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 하였나이다. 부디 배필(配匹)로 삼아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소서.’라고 하고는 사자(使者)는 문득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순으로 나누어 장가가서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제1도(都)라 하고 고을나(高乙那)가 사는 곳을 제2도(都)라 하고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제3도(都)라 하여 처음으로 오곡(五穀)을 씨뿌리고 또한 땅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로 살림이 풍부하여 갔다. 15대손(孫)인 고후(高厚)와 고청(高淸)에 이르러 곤제(昆弟)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때는 신라의 번성하던 시기였다. 이때에 객성(客星)이 남쪽 방향에 나타나므로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이국인(異國人)이 내조(來朝)할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신라에 들어오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첫째를 성주(星主)[그 성상(星象)을 움직인 때문이라 칭하고 둘째를 왕자(王子)[왕이 고청(高淸)으로 하여금 가량이 밀로 지나게 하여 사랑하기를 친자식과 같이 한 까닭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라 칭하고 막내를 도내(都內)라 하였으며 읍호(邑號)를 탐라(耽羅)라 하니 그것은 을 때 처음 탐진(耽津)에 상륙하였기에 때문이라 각각 보개(寶蓋)와 의대(衣帶)를 주어 보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공손히 신라를 섬기니 고을나(高乙那)로 성주(星主)를 삼고 양을나(良乙那)로 왕자(王

고려사지리지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제일 부분은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 從地從出」로 시작해서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로 끝나는 구절이다. 곧 신화적 부분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古記를 인용하여 三神人 출현과 그 자손들인 高厚 등의 신라 來朝가 언급되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른 논고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즉, ① 三神인이 실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고려후기이거나 조선초기의 신선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② 高厚와 신라 조공 시기가 역사상 허구에 불과하였다. ③ 고려 현종 15년(1024) 高沒이 등장하기까지 星主·王子들에게 高氏라는 성씨가 없었고, 高氏姓이 확립된 시기는 문종(1046-1083) 이후였다. 이때 高漢, 高叶(협), 高逸 등의 고씨성의 인물들이 고려사에 보인다. ④ 신라 말 고려초 지방세력가인 호족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씨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⑤ 三國史記에 따르면 탐라가 처음 조공한 대상은 백제 文周王 2년(476)이었지 신라가 아니었다. ⑥ 고려사지리지에 의한다면 고후 등이 신라에 조공한 시기는 祗摩(지마)尼師今(112-134)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신라의 이름은 斯盧(사로)國이었고 겨우 경주평야 정도를 지배하던 一小國에 불과하였다. 신라가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4세기 후반 내불왕(356-402)이었다.<sup>10)</sup>

한 예를 더 보면, 고려사지리지의 신화적 부분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를 갖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사로국 시대에는 「新羅」라는 國名도 「王」이란 칭호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智證麻立干 4년(503)에 서야 국호가 「新羅」로 정해졌고, 동시에 王號도 麻立干에서 중국식 「王」

子)를 삼고 부을나(夫乙那)로 도상(徒上)을 삼았고 뒤에 또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

10)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30-38쪽.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sup>11)</sup> 그 전 신라의 首長은 「王」이 아니라 「麻立干」, 「尼師今」, 「次次雄」 등으로 호칭되었다. 따라서 고려사지리지에 보이는 고후 등이 신라 조공했다는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 한마디로 고후 등의 신라 조공에 관한 이 부분의 기사는 후대 고씨문벌이 만들어놓은 假想世界에 불과하였다.<sup>12)</sup>

그래서 필자는 고려사지리지를 「古記云」의 삼신인과 고후 등에 관한 부분과 후속되는 역사적 사건 기록 부분을 각각 신화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으로 양분할 것을 제안한다.<sup>13)</sup> 다시 말하자면, 고려사지리지에서 「其州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 從地嶽出 [...] 至十五代孫高厚高濤 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라는 三神人, 고후 등의 三兄弟에 관한 古記의 신화적 부분과 「百濟文周王二年 拜耽羅國使者恩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註云 耽羅 耽牟羅 百濟既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晉律 來降」이라 하여 역사적 근거 있는 사실을 다루는 역사적 부분을 일단 분리하였다. 여기에 삼신인 행적에 관한 신화적 부분에서는 역사성이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고려사가 편찬이 아니라 민간에 이 서책이 얼마나 보급되었나

11) 「三國史記」智證 4년 冬10月: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爲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群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

12)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28-36쪽.

13) 「고려사」지리지 耽羅縣條: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大初無人物 三神人從地嶽出 [...] 至十五代孫高厚高濤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 百濟文周王二年拜耽羅國使者恩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百濟既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晉律來降.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조는 이렇게 古記云 부분과 역사적 부분으로 양분될 수 있다. 삼신인 부분은 古記를 보아서 작성된 것이고 역사부분은 당시 고려왕실에 소장된 역사서들을 참조하여 서술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능한 망라하는 것을 지향하며 여러 가족 단위들의 계보자료들을 집적하여 만든 계보기록이라고 할 것이다. 족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할 때, 한국사에서 족보는 15세기에 들어 와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족보인 安東權氏成化譜(1476년 간행)를 예로써 보면, 權幸이라는 시조로부터의 후손들을 계보상에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總系 원칙에 따라 3차에 걸쳐 수많은 가족단위를 계보자료를 모아 정리하였다. 이 족보에 수록된 인명은 총계적인 계보에 따른 후손이 약 8,000여 명에 이른다.<sup>36)</sup> 여하튼 성주고씨가전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문서들은 상술한 15세기 이후의 족보와는 성격이 다른 간단한 家譜類의 고문서라고 하겠다.

또한 이수건은 조선전기의 족보가 17세기 이후부터 가족·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고 한다. 16세기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良人化와,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이 및 문벌의식의 고조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양반이나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家系·族系를 새로 정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족보의 편찬체제도 부계친족(성손) 위주로 하되 女系는 사위와 그 외손에 한하고 그 이하는 생략하며, 자녀의 배열순도 출생순에 관계없이 선남후녀로 하였다. 또한 선대조상과 동재인의 생몰년월일·관직·처계·묘소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 심화된 성리학적 유교윤리의 반영이라고 하겠다.<sup>37)</sup>

상술한 연구를 참조하면, 본고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6종 문서들은 족보가 아니라 家譜·家牒과 같은 家系를 적은 기록물의 序文 같은 것이었다. 이것들은 고려부터 조선전기에 걸쳐서 주로 科擧 시험이나 任

36) 노명호, 「한국사 연구와 족보」(『한국사 시민강좌』 24, 일조각, 1999), 88-89쪽.

37)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 46쪽.

官을 목적으로 해서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던 문서들이었다. 정이오가 고득종에게서 받았다고 생각되는 문서, 즉 「譜」는 家譜를 지적한 것이다.

## 2. 長興高氏家乘

高得宗이 太宗 32년(1450) 지은 사찬문서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가졌다. 「조선초기 文臣. 字는 자부(子傅), 본관은 濟州, 鳳翥의 아들, 1414(태종 14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戶曹參議에 이르렀으며, 1438(세종 20년)에 種馬進貢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39에는 일본통신사가 되어 副使 尹仁甫·書狀官 金蒙禮와 같이 京都에 이르러 足利義教와 大內持世의 書契를 가지고 돌아왔다. 1441에 다시 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는데, 함부로 李滿住와 童凡察을 처치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투옥되어 江陰縣에 유배당하였다. 후에 풀려 나와 돌아와서 同知中樞院使(從2品)·漢城府判尹(正2品) 역임하고 1448년(세종 30)에 轉運使가 되어 충청·전라도의 쌀을 평안도에 漕運하였다.<sup>38)</sup>

태종 13년(1413) 고득종은 濟州按撫使의 啓에 의해 文邦貴·梁深과 더불어 孝子로서 褒賞되었다. 이는 親喪을 당하여 儒教 喪法인 三年喪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孝行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이 임관의 기회가 되었다. 후에 조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이러한 데에 연유한 바가 있겠다. 그 후 官途에 있는 동안 10여 차례 司憲府 등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듭해서 同知樞密院事(從2品 武官, 세종 23년, 1441)·漢城府尹<sup>39)</sup>(正2品, 文宗 卽位年, 1449)이란 고관까지 나아갔다. 그 배후에는 항상 世宗의 비호가 있었다.

세종이 고득종을 보호 발탁한 배경에는 조선왕조의 제주도에 대한 정

3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三桀出版社, 1984) 102쪽.

39) 漢城府[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한 官衙이며, 府尹이 判尹(정2품)인지 左·右尹(중 2품)인지는 不明이다.

책적 배려가 있었다. 세종은 정치적 자립성을 가졌던 濟州島를 조선조의 한 地方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며 대표자격인 고득종을 시종 옹호하였다. 이는 그를 통하여 세종이 제주도에 대하여 각별한 은혜와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在地勢力을 회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처사이었다. 그리고 고득종도 중앙관료로부터 「海外之人」이라 하여 견제 받는 상황 하에서 더욱 세종의 私恩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sup>40)</sup>

세종 27년(1445) 太宗 2년(1402)에 설치되었던 左·右都知管이 폐지되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印信이 公收되었다. 左右의 都知管이란 고려의 진 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던 星主·王主 호칭을 대신한 것이다. 이로써 본도는 명실상부하게 조선조의 일개 지방이 되었다. 고득종은 세종의 지방화 정책과 그것에 상응하여 세종의 사적 친밀감이 더해져서 중앙 고관으로 출세한 인물이었다.

고득종이 세종 32년(1450) 지은 장흥고씨가승은 다음과 같다.

瀛州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 從地中湧出 于漢擊山北麓 據墳壤品字之穴 名曰慕興穴 三人之出 正當九韓時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擊山 望見紫泥封大函 自東海中浮來 欲留而不去 三相謂曰 異哉 彼物也 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坼其封隱然 羅衣淑女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像竊窈 各修飾而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卽今朝天館下浦是也 三神人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語畢 烏巾紅帶青衣使者 亦從函中而出 稽首再拜曰 我是東海上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俱壯長 而求不得所耦 嘗欲遣與者 歲餘頃者 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蘢 中有絕岳 湧出三神人 將欲開國而無各無配匹也 因此命臣侍三女而送 願用伉儷之禮以成大業已 而忽然乘雲而去 莫知所之 三人

40) 高橋公明[다카하시 기미야끼], 「高得宗 研究」, 『耽羅文化』 10, 1990), 286-296쪽.

卽以潔牲告天 以年次分粢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漢擊北一徒里 良乙那所居曰第二都 漢擊右翼之南山方里 夫乙那所居曰第三都 漢擊左翼之南土山里 自茲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種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境 蓋九百之後 三人各射石以試勇力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故民心並歸于高氏 以高爲君長 以良爲臣 以夫爲民 而國號毛牟 以其牟穀茂盛故也 景泰元年 庚午 正月 崇祿大夫行吏部尙書 漢陽判尹 高得宗謹誌(景泰元年: 世宗 32년, 1450년).<sup>41)</sup>

- 41) 玄容駭,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1992) 222쪽 所收, 필자의 재인용. [한글 번역문-필자]: 태초 영주에는 인물이 없었다. 하루 홀연히 삼신인(三神人)이 땅 속에서 솟아 나왔다. 한라산 북쪽 기슭에 광양(廣壤) 터에 품자(品字)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그 이름을 모흥혈(毛興穴)이라 한다. 삼인(三人)이 나올 때는 바로 구한(九韓) 때였다. 삼인 중 장자는 고을나, 다음은 양올나, 세 번째는 부올나라고 하였다. 그 모습들은 키가 크고, 마음의 도량은 넓었다. 그런데 이 섬은 아직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 세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옥식하고 항상 수렵을 일로 삼아서 가업(家業)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는 삼인이 한라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는데, 자주 빛이 나는 큰 함이 동해 바다로부터 떠오르고 있었다. 그 상자는 해안에 머물러서 떠나려고 하지 않자 삼인은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이물(異物)이다' 하였다. 내려가서 상자를 열고 보니, 상자 안에 계란과 같은 옥함(玉函)이 있었다. 그 봉한 것을 열었더니 비단 옷을 입은 숙녀 삼인이 나왔는데 나이는 모두 15, 16세였다. 그 모습이 숙기를 벗어났고 기상이 압전했다. 각자가 외관(外觀)을 꾸미고 앉았다. 또한 그 처녀들은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종자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꺼내 금당(金塘) 연못의 언덕에 두었다. 이곳이 지금 조천관(朝天館) 하포(下浦)이다. 삼신인이 서로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마치자 오건홍대(烏巾紅帶)하고 청의(靑衣)를 입은 사자(使者)가 역시 함곡에 나왔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며 재배(再拜)하면서 '나는 본래 동해 벽랑국(碧浪國) 사신입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내가 삼녀를 낳았는데 나이가 들어 배필을 구할 수가 없다. 항상 딸을 줄 자를 찾았다. 요즈음 자소각(紫霄閣)에 올라 멀리 서쪽 바다에 떠오른 기(氣)를 보았다. 자주 빛 기운이 하늘에 닿았고 상서로운 색이 푸르렀다. 그 가운데 절악(絶岳)이 있어, 거기서 삼신인이 솟아났다. 그들이 개국(開國)하려고 하나 배필이 없었다' 하였다. 이로 인해 신(神)에게 명하여 삼녀(三女)를 시종하여 보냈다. 위컨대 배우기의 혼인 애이로써 빛이하여 내입(人業)을 이루소서 하였다. 그리고 나자 사신은 골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려서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삼인(三人)은 깨끗한 회생을 잡아 하늘에 고하고 나이 순서로 삼녀를 취하였다. 그리고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에 가서 화살을 쏘아서 땅을 정하였다. 고을나가 산 곳을 제일도(第一徒)라 하였는데, 한라산 북쪽 일도리(一徒里)였다. 영올나기 산 곳은 세이도(第三徒)라고 하였는데, 한라산 우측 남쪽

고득종은 정이오에게 부탁하여 태종 16년(1416) 성주고씨가전을 지었는데, 다시 34년 지난 후인 세종 32년(1450) 이번은 스스로 장흥고씨가승을 작성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주고씨가전이나 장흥고씨가승에 34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고득종이 정이오의 성주고씨가전에 대해 이런 불만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략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성주고씨가전에는 毛興穴의 지형, 三神人·三神女の 행적, 三神女の 수행사절, 射矢卜地의 三徒[都]의 지명들이 없다. 이렇게 자기 조상의 구체적인 행적이 소략하게 다루어진 데에 불만이 고득종으로 하여금 장흥고씨가승을 저작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여기에는 고관직을 역임한 인물로서 자기 조상을 자기 손으로 顯揚(현양)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수식적 문장과 신선사상을 빌어서 고씨 시조로서 삼신인 사적을 세심하게 갖추어 놓은 것이 바로 장흥고씨가승이 아닌가 한다. 이 문서의 특징에 관해서는 次節에서 영주지와 비교하면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 3. 瀛洲誌

高氏宗門에서 발행한 책에 의하면, 영주지는 탐라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으로서 현존하는 각종 문헌 중 가장 권위 있는 正史本이고 가장 오

---

에 있는 산방리(山方里)였다. 부을나가 산 곳은 제삼도(第三徒)라고 하였는데, 한라산 좌측 남쪽에 있는 토산리(土山里)였다. 이후에 산업(産業)을 이르게 오곡 종자를 심고 송아지 망아지를 쳐서 낫날이 부자가 되었다. 이후 사람 사는 지경이 되었다. 대략 구백 년 지나서 삼인은 각자 활로 돌을 쏘아서 용력(勇力)을 시험하였다. 고씨가 위였으며, 양씨는 중간이었으며, 부씨는 아래였다. 그러므로 민심이 고씨에게 돌아가자 고씨가 군장(君長)이 되었다. 양씨는 신하가 되었고, 부씨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국호를 탁모(毛牟)라고 하였으며, 이는 보리[車靱]이 무성하였기 때문이다. 경태원년(景泰元年, 세종 32년, 1450) 경오(庚午) 正月 승록대부행이부상서(崇祿大夫行吏部尙書) 한양판윤(漢陽判尹) 고득종근지(高得宗謹誌).

래된 最古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sup>42)</sup> 이와 비슷한 주장도 영주지가 제주도 역사자료로서는 가장 오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著者나 저작연대는 확실치 않다. 단 문헌이 조선 태종 16년 鄭以품가 지은 성주고씨가전과 세종 32년(1450)에 고득중이 지은 序世文과 기타 高氏世譜 등이 접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엽 내지 조선초기의 저작이 아닌가 한다.<sup>43)</sup> 그러나 후술할 바이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필자의 생각에는 영주지가 정조 24년(1800)에 제주 高鳳禎 등이 제주목사 정관휘로부터 고씨 시조에 관한 증빙문서를 요구받아 작성된 것이다. 영주지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瀛州 太初無人物也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裕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 登漢擊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嘗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蘢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徒 良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 以高爲君 國號毛羅 至十五世孫 厚清三昆季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已而毗羅來朝 新羅王喜曰 子以不德 連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清令出昫下 愛如己子 名曰王子東宮 以季爲徒內 改耽羅爲南化國 各賜衣冠寶蓋 親送

42) 『耽羅星主遺事』(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編, 1979), 326쪽.

43) 金奉正, 『瀛洲誌 解題』(『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1쪽.

南道車騎輜重人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以修藩臣之禮 至厚  
十二世孫聘服事百濟 聘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  
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  
太祖二十一年戊戌耽羅國王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  
後世一朝 見而未有築仕王國者 至維始仕焉.<sup>44)</sup>

우선 영주지를 장흥고씨가승와 비교하여 그 특색을 찾아보겠다. 우선 영주지에는 장흥고씨가승에 보이는 ① 「塘壤品字之穴」, ② 「正當九韓時」, ③ 「出置金塘之岸 卽今朝天館下浦是也」, ④ 「漢擊北·漢擊右翼之南山方里·漢擊左翼之南土山里」, ⑤ 「忽有三神人 從地湧出鎮山北麓」, 등의 구절들이 안 보인다. 특히 品字 형태로 된 毛興穴의 모습이라든지 제주의 상징이라 할 山名 「漢擊」, 그리고 본도 행정의 거점 지역인 「山方里」와 「土山里」 지명이 누락되었다. ⑥ 장흥고씨가승의 「第一都·第二都·第三都」가 여기서 「第一徒·第二徒·第三徒」로 改書되었다. ⑦ 장흥고씨가승의 「三人各射石以試勇力 [...] 高爲上 良爲中 夫爲下 以良爲臣 以夫爲民」을 누락시키고 있다. 영주지 작자는 高氏 이외에 良氏·夫氏를 高氏의 臣民으로 여기고 있다. ⑧ 영주지에서는 장흥고씨가승의 문구들, 즉 「國號毛牟」, 「而國號毛牟 以牟穀茂盛故也」을 각각 「國號毛羅」, 「改耽羅爲南化國」으로 개서하였다. 영주지 작자는 제주의 고유 명칭인 國名 「毛牟」를 그저 무미건조하게 「耽羅」로 개칭한 다든지, 국호의 연유를 「南化國」이라 하여, 신라왕의 教化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주지가 유교 성리학으로 세뇌되었던 조선중기 이후의 인물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지 않나 한다. ⑨ 두 문서의 차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장흥고씨가승이 「景泰元年[世宗 32년, 1450] 庚午 正月 崇祿大夫行吏部尙書 漢陽判尹高得宗謹誌」라 하여 그 저작연

44) 「耽羅星主遺事」, 326-328쪽.

대·작자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저작 목적을 고씨 시조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렇게 작자, 연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문서는 역사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영주지는 그 史料적 가치가 떨어지는 二次史料가 된다.

그러나 두 문서들 사이에 시대적 순서를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는 없다. 영주지에서는 제주의 구체적 지명들이 누락되어 있고, 장흥고씨가승에서는 그것들이 상세하다는 것 이외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약간의 증거들이 있다. 영주지는 장흥고씨가승에 비해 「敬事新羅」, 「南化國」, 「第一徒」 등으로 유교적 名分論이 강한 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분권이 강한 조선후기에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방증을 준다.

그리고 영주지에서는 다른 兩姓인 良氏·夫氏를 高氏의 臣民이었다고 해서 고씨의 首位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주지 연대 결정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말할 바이지만 正祖 10년(1786)에 제주 유생 고봉정이 三姓祠에서 高氏가 良氏보다 下位 序次에 놓여있는 것을 분개해서 직접 상경해서 상소함에 따라 그 후 소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조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위 24년(1800), 철저한 문적 조사를 제주목사 정관휘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고봉정이 영주지를 급히 작성하지 않았나 한다. 이런 와중에서 양씨·부씨가 고씨의 신민이었다는 영주지의 주장은 이런 서차 주장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주지가 장흥고씨가승보다 약 350년 정도 후의 문서가 아닌가 한다.

다음은 5종 문서들과 영주지를 비교하여 선후 관계를 정해보겠다. 영주지에서 東海碧浪國使者가 三女를 수행해 온 장민을 「冠帶紫衣使者隨來」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문서들에서는 「紅帶紫衣使者」(세종실록지리지), 「紅帶紫衣使者隨來」(고려사지리지), 「紅帶紫衣使者隨來」(신증동국여지승람), 「紅靽紫衫者」(성주고씨가전), 「東海上碧浪國使」



(장흥고씨가승)이라 하여 「隨來」 문구가 없다. 그래서 「隨來」 문구는 관찬문서들인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사찬문서인 영주지에 나온다. 이들 간에 발간의 선후는 세종실록지리지(1432), 고려사지리지(145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순서이다. 여기서 세종실록지리지는 「隨來」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려사지리지에 그대로 전사하였다는 관계로 일단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같은 「隨來」 문구가 있는 고려사지리지와 영주지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 문제로 좁히자.

고려사지리지 편자는 양성지이다.<sup>45)</sup> 그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약간의 자구들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베껴서 고려사지리지를 편찬하였다. 그러면 轉寫하는 과정에서 세종실록지리지에 없는 「隨來」구절을 삽입시켰는데, 이것이 그의 작문에서 나왔는지 영주지를 보아서 그렇게 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시대상황으로 보아서 필자에게는 양성지의 작문 과정에서 나온 변경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그가 조선초기

45) 梁誠之 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온라인 판, 검색결과: 1415(대종 15)~1482(성종 13). 조선 전기의 학자·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순부(純夫), 호는 눌재(訥齋) 또는 송파(松坡). 우(偶)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석용(碩隆)이고, 아버지는 증 좌찬성(贈左贊成) 구주(九疇)이며, 어머니는 전주부윤 권담(權澹)의 딸이다. 6세에 독서를 시작해 9세에 글을 짓고, 1441년(세종 23) 진사·생원 두 시험에 이어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경창부승(慶昌府丞)과 성균주부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副修撰)·교리(校理) 등을 지내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춘추관기주관으로 고려사 수사관을 겸직해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이어 집현전직제학에 승진, 이듬해 집현전이 폐지되자 좌보덕(左輔德)에 전임,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제학으로 취임하였다. 이듬해 구현시(求賢試)에 급제,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사헌에 제직 중 《오륜론 五倫論》을 지어 바쳤다. 1466년(세조 12) 발영시(拔英試)에 2등으로 급제했으며, 1469년(예종 1) 지중추부사·홍문관제학·춘추관사를 겸직해 《세종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하다가 지춘추판사가 되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승진했으며 이 해 문신 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였다.

에 고급관인으로 여러 편찬사업에 참여하였고, 그중 하나가 고려사지리지인데 여기에서도 매우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고려사지리지에서 三神人 기사에 대해 「其古記云」이라 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사지리지에는 영주지에 나오는 高維의 고려왕조에 任官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이는 사찬문서들에서 가장 내세우는 고씨 가문의 관직이나 경력에 대해 무관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일 영주지가 눈앞에 있다한들 양성지가 무엇 때문에 無名의 단편 문권을, 그것도 있어도 없어도 좋을 사소한 「隨來」 문자까지 베끼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의문이다. 조선왕조 관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권위와 이름을 중시하는 名分論的 심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엘리트 급인 양성지가 이름도 없는 영주지를 보고 이를 고려사 지리지에 그것도 아주 사소한 「隨來」 2자까지 그대로 전사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 예로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고려사지리지)와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怒 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耽羅國王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 見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영주지)라 하는 두 문서들의 구절들을 비교해 보자. 양성지가 영주지를 그대로 옮겨놓았다면, 양성지는 65글자들(필자 강조한 진한 글자들)을 왜 그대로 베끼지 않았는가. 양성지는 영주지하고는 관계없는 자료를 이용하여 고려사지리지를 편찬한 것이다. 그래도 영주지의 「最古」를 주장한다면, 이는 작자와 연대가 불명하여 알 수 없다는 이유, 바로 「不知」하다는 신비성 때문에 다른 민본을 베끼는 것이 될 것이다. 영주지가 직시가 불명하다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신비」하게 만들어 어떤 자기 주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 둘 일은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는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책들

이 아니었다. 대신에 고려사지리지의 내용이 그대로 등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년, 1530)이 巷間에 보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영주지 작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隨來」를 보고 옮긴 것이 된다. 그러면 영주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행년, 즉 1530년 이후 작성된 문권이 되겠다.

6종 문서들이 사용한 어구를 살펴보면, 「敬事國家」(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가 「敬事新羅」(신증동국여지승람)로 변경되었다. 영주지에서도 「敬事新羅」로 되어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같다. 그리고 「日本國使」(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가 영주지에서는 「東海碧浪國使」라 표현되어 장흥고씨가승의 문구 「東海上碧浪國使」와 같다. 이 같이 영주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장흥고씨가승의 어구를 여기저기서 뽑아서 글을 엮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西海中嶽 降神子三人」(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西海中岳 降神子三人」(신증동국여지승람), 「東海之濱 神子三人」(성주고씨가전), 「中有絕岳 湧出三神人」(장흥고씨가승), 「中有絕岳 降神子三人」(영주지)이란 문구들을 비교해 보면, 영주지가 관찬문서들과 사찬문서들을 절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찬 지리지들이 「神子三人」이 하늘에서 「西海」에 降下했다는 「降」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찬문서인 성주고씨가전에서는 「東海」로 바뀌지고, 다시 장흥고씨가승에서는 각각 「中有絕岳」, 「湧出」, 「神人」으로 변경되어 있다. 영주지의 「中有絕岳 降神子三人」은 장흥고씨가승의 「中有絕岳」, 관찬 문서들의 「降神子三人」을 서로 혼합하고 이렇게 영주지는 관찬 문서들, 사찬문서를 가리지 않고 적당히 어구들을 추출하여 작문하고 있었다. 이것도 다른 5종 문서들이 일제히 영주지를 베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증이다.

영주지 텍스트의 특징들에 관해 더욱 살펴보겠다. 장흥고씨가승을 제외한 5종 문서들에서 역사적 부분의 기사들과 高麗史와 三國史記의 그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필자는 장흥고씨기승의 역사부분을 열람하지 못했다).

- ① 百濟 文周王二年丙辰 拜耽羅國使者思率 東城王二十年庚申 以耽羅不修貢賦 親征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 高麗肅宗十年乙酉 改毛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세종실록지리지).
- ② 百濟文周王二年 拜耽羅國使者思率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高麗肅宗十年 改毛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고려사지리지).
- ③ 東城王二十一年 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其主聞之 遣使乞罪乃止 [...] 高麗太祖二十年 遣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肅宗二十年 改毛羅爲耽羅郡(신증동국여지승람).
- ④ 及前朝太祖統三之初 星主高自堅 王子良且美 卽良乙那之後 改以良聲相近也 世一朝見 太祖待以優渥 [...] 然世雙星主王子而以 未有筮仕王國而大顯者 高維始以賓貢 靖王乙酉首中南省試 明年丙戌李作挺榜第三人 官至右僕射(성주고씨가전)
- ⑤ 百濟東城王庚申 以耽羅不修朝貢 發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 耽羅國王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見 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영주지).
- ⑥ (百濟 東城王) 二十年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卽耽牟羅)(삼국사기).
- ⑦ (太祖二十一年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高麗史 世家).
- ⑧ (文宗 十一年 正月 己丑) 以高維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高麗史 世家).

앞서 고려사지리지에 관한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高厚 등의 事蹟 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종 문서들의

역사적 부분에 한정하고 고려사와 삼국사기를 더하여 8종 자료들을 비교하겠다. 우선 영주지는 고려사지리지의 원문에 멋대로 위조된 문구를 삽입하여 날조하고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자료 ⑦ 태조 21년(938) 冬12월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이라 하여 탐라국 太子 末老가 고려에 내조하여 星主·王子 작위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영주지는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 耽羅國王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王子爵」이라고 「國王」, 「高自堅」이란 자구를 부정하게 끼어놓고 있다. 고려사 원문에는 「國王」, 「高自堅」이란 말이 없다. 특히 高自堅이라는 인물은 자료 ④ 성주고씨가전에 星主 高自堅과 王子 良且美가 고려 태조의 초기에 방문하여 극진한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초기 星主·王子들에게는 高氏라는 성씨조차 없었다.<sup>46)</sup> 하여튼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주지가 자료 ④ 성주고씨가전 기사를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 ⑧ 고려사 문종 11년 조에 고유의 관직 서임에 관하여 「以高維 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이라 한다. 이를 영주지에서는 「自後世一朝見 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이라 대충 적어놓고 있다. 이는 영주지 작자가 고려사 원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성주고씨가전의 「未有筮仕王國而大顯者」을 보고 필사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未有筮仕王國而大顯者」의 「而大顯」부분을 빼고 「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으로 만들어버렸다. 영주지는 고유가 어느 왕대에 어떤 관직을 가졌는지 不記하였다. 이는 영주지 작자가 고려사 靖宗 기사를 보지 않았으며, 성주고씨가전을 참조할 정도였음을 말해준다.

三國史記의 百濟 東城王 20년 8월 기사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

46)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6-7쪽, <표-1> 星主王子 來朝表 참조

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即耽牟羅」가 영주지에서는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 乃止其兵」이라 되어있다. 여기에는 「百濟東城」, 「發怒興師率四千騎」, 「耽羅王」 등이라는 三國史記에 없는 문구들이 가필되고 있다. 이런 문구는 관찬 문서들에는 없고 단지 영주지에만 보이는 것들이다. 여기서 영주지 작자는 탐라 하면 「王」이라 짐작하여, 예를 보면 고려 태조 21년 「耽羅國太子未老」를 「耽羅國王」이라 고쳐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시기에 耽羅王·國王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耽羅國」이라는 단어는 「夫濟州古稱耽羅國」(세종 1년 7월 13일), 「耽羅國使者」(세종실록지리지 全羅道 濟州牧), 「耽羅國主」(左同), 「竊惟濟州耽羅國也」(성종 9년 10월 13일)이라고 하여 4회 나오고 그 후는 없어졌다. 이에 반하여 「耽羅」는 「耽羅」(태종 3년 [1403] 11월 19일)부터 「教曰咨爾耽羅民人」(순조 22년[1822] 10월 19일)이라고 전 조선왕조 기간 상용되고 있었다.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제주가 「耽羅國」, 「耽羅國主」라고 호칭된 적은 있지만, 「耽羅國王」, 「耽羅王」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 이는 조선왕조의 공식명칭이 아니라 민간에서나 사용 가능한 말이었다고 하겠다. 이것도 영주지가 신증동국여지승람하고는 다른 계통이며, 후자가 필사할 정도의 最古性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耽羅國王」이라고 동일한 어휘를 썼던 인물들이 있었다. 조선 후기 正祖代(1776-1800)에 高良夫의 序次 문제로 제주 내에서 三姓 사이에 분류가 있었음이 여러 자료들에 보인다.<sup>47)</sup> 그중 正祖 10년(1786) 2월에 濟州 高鳳禎 등이 올린 上疏文에서 이 어구가 나온다.

47) 「耽羅主遺事」(617-644쪽)에 서차 문제에 관해서 「조선왕조실록」, 「承政院日記」, 「觀察使關文」, 上疏文 등의 관계 문헌이 수집되어 있다.

右謹啓 臣矣身等 伏以君臣之分 常經之不可紊 祖先之誣 後裔之所當下 是白齊 臣矣身等 卽古耽羅國王 高乙那之后裔也 蓋於三姓祠位次 臣矣等 始祖高乙那 當在上 而反居下是白遺 良乙那當在下 而反居上是乎 則其上下之失序 分義之紊亂 在所急急陳下是白乎等以 臣矣身等 涉千里冒萬死 茲敢陳籲於 法駕之前爲白去乎 伏願 聖名 垂察而釐正焉 粵在遼古 臣矣等 始祖高乙那 與良乙那 湧出於漢拏山毛興穴是白多乎 臣矣等始祖高乙那 爲主於濟州是白遺 良夫兩乙那 分長於大靜旌義而居者 各九百有餘年是白 如何 一島之人心 捨良夫而歸于高是乎等以 高乙那 遂統爲王於三邑之地 而良乙那爲臣 夫乙那爲民 又經百餘年所 其後高姓四十五代 相傳爲君長 [···] 當援據而條陳之 夫取信文字 莫上於史記 則羅史 高厚高淸高季三昆 弟入朝 麗史曰耽羅國主高自堅 遣太子末老入朝 高氏之爲君 良夫之爲臣 爲民 此可明證是白遺.<sup>48)</sup>

三姓祠 序次에서 양을나가 고을나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 씨 가문을 대표하여 高鳳禎 등이 그 부당성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

48) 全羅道濟州 高鳳禎等 疏文, 『耽羅星主遺事』, 626쪽 所收, 원자 재인용. [한글번역] 全羅道濟州 高鳳禎 등은 삼가 아뢰옵나이다. 臣等은 그욕이 생각건대, 君臣의 分義는 綱常을 문란하지 못할 것이요, 先祖의 誣妄은 후손들의 마땅히 分辨할 바이 옵니다. 臣等은 옛날 耽羅國王 高乙那의 후손입니다. 무릇 三姓祠의 位次는 臣等의 位次는 臣等의 始祖 高乙那가 마땅히 위에 있어야 옳은데 도리어 아래에 있고 良乙那는 마땅히 아래에 있어야 옳은데 도리어 위에 있으니, 上下의 序次가 어긋났고 分義가 문란하여 급급히 陳辯하지 않을 수 없기에 臣等이 천리 길을 跋涉하여 萬死를 무릅쓰고 감히 法駕의 앞에 呼訴하옵나이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聖明께서 굽어살피옵소서. 上古時代에 臣等의 始祖 高乙那가 良·夫 兩乙那로 더불어 漢拏山 毛興穴에서 솟아 나와 臣等의 始祖 고을나가 계주를 주관하고 良·夫 兩乙那는 大靜 旌義에 分長하여 居生한지 각 九百여년이 되었는데, 一島의 人心이 良·夫를 버리고 고씨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을나가 드디어 三邑을 통솔하여 임금이 되고 良乙那는 臣下가 되었으며 夫乙那는 百姓이 되었는데, 또 百여년을 살아 一千여년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 무릇 高乙那의 임금된 實蹟을 臣이 文籍을 증거하여 條陳하겠나이다. 대개 取信하는 文字는 史記가 가장 소중하운데, 新羅史記에는 高厚 高淸 高季 三昆弟가 入朝했다 하였고, 高麗史記에는 耽羅國王 高自堅이 太子 末老를 보내어 入朝했다고 기록되었으니, 高氏가 임금이 되고 良氏와 夫氏는 臣下가 되며 百姓이 된 것을 이로서 명백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 본도에서는 고씨 가문의 高乙那가 고대 탐라국 國王, 즉 「古耽羅國王」의 시조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耽羅國主 高自堅이 太子 末老를 보내서 고려에 입조했던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자견이 성주고씨가전을 근거한 인물이므로 고봉정은 성주고씨가전을 열람하고 인용한 것이다. 그것도 한 개인이 사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상소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한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말엽 경 제주 고씨 가문에는 성주고씨가전이 실린 東文選이 비치되어 여럿이 참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다 영주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소한 문구 「紅帶紫衣使者隨來」를 그대로 베끼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책도 참고한 것 같다. 그들은 상술한 서책들과 고씨족보 등을 참조하여 상소문을 작성한 것 같다. 그들 중 우두머리 격인 고봉정이 上京하여 정조의 행차를 가로막고 직접 상소문을 올렸다.<sup>49)</sup>

이 상소를 받은 정조는 禮曹에 명하여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 하라고 명한다. 재차 예조에서는 濟州牧使 李明俊에게 三姓祠 位次에 관하여 전말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정조 10년, 6월 20일의 牒(첩)文은 이에 대한 이명준의 대답이었다.<sup>50)</sup> 이런 高良夫 序次 문제는 계속되어 14년이 지난 후에 정조 24년(1800)에 왕은 다시 정조는 제주목사 鄭觀輝(휘)에게 이 문제를 判決하라고 분부한다. 그래서 정관휘는 제주에 있는 三姓에 관한 文卷을 모아서 정조에게 바치고 있다.

三姓祠位次事報: 羅史曰 高厚高淸高季三昆季入朝 麗史曰 耽羅國主高自堅遣子末老入朝 且中國刊印彙群通考諸夷條 有瀛洲 而高氏族譜曰 高乙那爲瀛洲君長 史云壽千餘歲 卽高氏爲君 [...] 丙午分因高鳳禎上言 自本牧論理 登文後 一遵賜額時祭文次序施行之意 啓下正式則 爲今臣庶者

49) 「耽羅星主遺事」(633쪽), 濟州牧使查啓文(始祖位次變更事 啓顯末): 道內濟州居幼學高鳳禎 觸前上言.

50) 위의 책, 633쪽: 緣由馳 啓後騰報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更何敢貳議而上項 良哥非理起鬧 或其僥倖 是如曰是曰非 互相爭詰 實難歸正分不論 高哥所云 壽千歲史記即使現納則 鳴中雖無此書 內地多有所貯是如爲乎 等以外此文卷都封上送 亦爲有置今此兩姓 各爲其祖自言其首而不幸屢百年前 官府失火州乘諸記盡爲見燼 而他無可懲之文即 久遠實蹟 猝難質正故 前後 啓本無漏謄出 上樑懸板亦爲印出後 其矣東國通鑑 耽羅志 南棧錄 祠笏記 彙群通考 兩姓族譜拜爲堅封上送 是在果至於建廟時啓錄 今無見存者 不得謄上緣由云云.<sup>51)</sup>

여기에서 고씨의 양씨는 三姓祠 序次 문제로 도내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제주목사 정관휘는 그들에게 증거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그들은 兩姓 始祖의 사적이 천년 전의 일이기에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씨 측은 제주에 是州乘과 文籍이 官府의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화재를 핑계 대고

51) 「耽羅星主遺事」, 638-639쪽. [한글 번역문]: 新羅史記에는 高厚 高淸 高季 三昆季가 入朝하였다고 하였고, 高麗史記에는 耽羅國主 高自堅이 그의 아들 末耆를 보내어 入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간한 彙群通考 諸夷條에는 東海에 瀛洲가 있는데 고씨족보에 高乙那가 瀛洲君長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으며 史記에는 高乙那가 천여년을 장수했다고 하였은즉 高氏가 임금인 것은 단연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 “丙午年分(正祖 10년, 1786)에 高鳳禎의 上言으로 인하여 本州 牧使로부터 論理啓開한 後에 한결같이 賜額時 祭文과 次序에 따라 施行하라는 뜻으로 啓下하여 規式을 삼았은즉 오늘날 臣民된 자가 어찌 敢히 異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良哥들은 理性을 망각하고 分란을 일으켜 혹시 요행이나 바랄까 하고 是非를 들며 서로 爭論하니 실로 歸正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高哥들이 이른바 高乙那가 千年을 장수했다는 史記를 即時 올리라고 한즉 本島에는 비록 이 書冊이 없으나 내륙지방에서는 비치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하기에 이 史記는 제외하고 그밖에 文卷은 모두 封하여 올려보내웁니다. 이에 두 姓氏가 각기 그 선조를 위하여 서로 머리가 된다고 하는데 불행히 수 백년 전에 官府가 화재를 만나 州乘과 여러 文籍이 燒失되고 달리 徵信할만한 文卷이 없어 久遠한 實蹟을 猝然히 質定하기 어려움으로 앞뒤의 啓本을 遺漏함이 없이 謄出했으며 上樑懸板도 또한 印出한 후에 東國通鑑, 耽羅誌, 南棧錄, 祠笏記, 彙群通考, 兩姓族譜와 아울러 모두 堅封하여 올려보내웁고, 祠堂을 세울 당시의 啓錄은 이제 보존된 바가 없어 謄出하여 올려 올리지 못하웁니다”라고 하웁기에 그 緣由를 삼가 아뢰웁나이다. 正祖 24년(1800) 濟州牧使 鄭觀輝 修報.

있다 한다. 여기서 사적이 천년 전이라든지, 화재로 서책이 소실되었다 등의 말은 고봉정이 상소문에서 주장한 것들이다. 그래서 제주목사 정관휘는 高氏와 良氏의 분쟁을 해결할만한 증거 문권이 본도에 없는 것을 알고서는 대신 東國通鑑, 耽羅志, 南槎錄, 兩姓族譜 등을 올려 보냈는데, 심지어는 上樑 懸板까지 떼어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문적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관휘가 문서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영주지와 같은 문권이 없었다. 보고문 중에 「中國刊印彙群通考諸夷條有瀛洲而高氏族譜曰高乙那爲瀛洲君長」이라 하여 「瀛洲」(휘군통고), 「高乙那爲瀛洲君長(고씨족보)」이라 하여 휘군통고, 고씨족보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영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 시점 즉 정조 24년(1800) 정관휘가 제주 문서들을 조사할 때 영주지라는 문권은 제주라는 세상에는 없었다. 영주지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제주에는 고씨가 탐라국의 시조였다는 증거가 될만한 여타 文卷조차 없었다. 그래서 兩姓 사이에 분쟁만 계속될 따름이라고 한다. 우리는 18세기 말엽 제주도에 삼성시조에 관해 고문서가 山積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목사 정관휘는 삼성시조에 관한 문적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수집된 것들에는 동국통감, 탐라지, 남사록, 고씨족보, 심지어는 건물 마룻대 懸板까지 포함되었다. 그는 집 마룻대 현판까지 뜯어내어 혹시 삼성 시조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광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도서 중에서 좀 내용이 자세한 것을 들자면 耽羅志(孝宗 4년, 1653년 간행)<sup>52)</sup> 정도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라 해봐야 삼

52) 耽羅志 建置沿革 條(耽羅志,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207-208 쪽: 本九韓之一 或稱毛羅(安弘記列九韓毛羅居四) 或稱耽羅 或稱耽牟羅 在全羅道南海中 幅員四百餘里 初有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兄弟三人分處其地 名其所居曰徒(輿地勝覽作都下同) 新羅時 高厚 高淸 及季(季失其名) 航海來朝 王喜 號厚曰星主 淸曰王子 季曰徒內 賜國號曰耽羅[……] 高麗太祖 二十年戊戌 耽羅國主 遣

성시조에 관해서는 몇 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제주목사 정관휘는 결자해지 방식으로 사건의 장본인 고봉정에게 증빙서류를 내라고 압박질렀을 것이고, 고봉정은 이에 구할 수 있는 이 문적들을 참조하면서 고씨족보에 나오는 「高乙那爲瀛洲君長」이란 문구를 길게 늘여서 문서를 한편 작성하였다. 이것이 영주지의 탄생이라 하겠다. 그래서 고봉정은 이를 高氏族譜에 첨부하여 牧使에게 제출하였고, 제주목사는 이를 다른 문적과 함께 禮曹에 올려보냈다. 예조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왕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그 후 이 문서는 왕의 御命과 관계되었기에 왕실도서 보관소인 璿源殿 奉安圖書에 수장되게 되었다. 이 문권은 이후 발간된 增補文獻備考(1908년 刊行)에서 瀛洲誌[志]라고 언급되어 있다.<sup>53)</sup>

고봉정이 영주지 작자라는 위와 같은 가정은 간접적이어서 고씨 중 다른 누군가가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만 단서 하나가 있다. 영주지와 고봉정의 상소문을 비교해보면 각각 「高麗太祖 21年 戊戌 耽羅國王 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영주지),

太子末老來朝 仍賜星主王子爵. [한글번역: 제주는 근본 九韓 중의 하나이다. 혹은 탁라(毛羅)(安弘記列에 탁라는 4번째라 하였다)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혹은 탐라 또는 탐모라(耽牟羅)라고도 하였다. 처음에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형제 3인이 있어 그 땅에 나누어 살았는데 그 거주하는 곳을 도(徒)라고 하였다.(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고을도재(都) 아래는 같다) 신라 때 고후(高厚) 고청(高淸) 및 셋째(세제의 이름은 모른다)가 바다를 건너와서 조공하니 왕이 기뻐하여 호를 주었는데 후는 星主 칭은 王子 셋째는 도내(徒內)라 하였으며 국호(國號)를 주어 탐라라고 하였다. [...] 고려 태조 20년(937)에 탐라국주가 태자 말로(末老)로 하여금 입조(入朝)하게 하니 성주 왕자의 작위를 주었다.

53) 『增補文獻備考』 51권 帝系考 24 : 濟州高氏始祖高乙那 毛羅國王 瀛洲志曰 初無人物 忽有三神人從地湧出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次曰夫乙那 忽有紫泥封石函浮至東海 [...] 『耽羅星主遺事』, 617쪽에서 재인용. 「紫泥封石函」은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지리지에 「紫泥封木函」과 같다. 단 신증동국여지승람의 「木函」이 증보 문헌비고에서 「石函」으로 바뀌져있다.

하는 관점에서 주의하면, 이 책도 민간에서는 거의 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려사가 문종1년(1451)에 완성되었다고 하나, 간행 연대가 모호하고, 또 근래에 이르기까지 巷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책이 아니었다. 고려사를 민간이 비교적 쉽게 입수하게 된 것은 1955년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에서 木版本을 가지고 影印刊行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sup>14)</sup> 실제로 정조 10년(1786)의 시점에서 고려사는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책이었다. 예를 들면 정조 10년(1876)에 제주 고씨와 양씨 간에 三姓序次 문제가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 이때 濟州牧使 李明俊이 정조에게 올린 보고서에 다음 같은 말이 있다.

高譜則高厚之朝羅 自堅之入麗 鳳禮之歸于我朝 俱有可據之文蹟是白乎矣 梁譜則只載麗史古記 長曰良乙那五字 而麗史古記 今無其書 人不得見焉 則未定傳信之文是白遣.<sup>15)</sup>

麗史古記의 「長曰良乙那」 문구는 고려사지리지의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조 10년(1786), 제주에서는 고려사란 사람이 구경할 수 있는 책이

14) 李昌世, 「高麗史 解題」(『高麗史』上, 亞細亞文化社, 1972), 14-16쪽; 高麗史 全文이 世宗 30년에 鑄字所에서 내려 鑄字로써 印出하였음이 확실하다. 이런 鑄字는 少數印이었다 하더라도 第二次 印出本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쨌든 고려사의 印本으로서 현재 전하는 最古本은 成宗 13년(1482) 乙亥字印本이라고 본다. 1908년 日本 國書刊行會에서 活版本을 간행, 1948년 國際新聞社에서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의 木版本이 影印 刊行. 1955년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에서 木版本을 가지고 影印刊行되었다. 고려사 입수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은 1955년 연세대학교에서 영인 간행된 이후부터이다.

15) 濟州牧使 金啓文[始祖位次變史에 관한 顛末狀啓](『耽羅星主遺事』), 627-635쪽 所收, 필자 재인용; 高氏 족보에는 高厚가 신라에 入朝했으며 高鳳禮는 朝鮮에 歸順하여 모두 근거할만한 文蹟이 있는데, 梁氏 족보에는 다만 麗史古記에 長曰良乙那라는 五字가 실어있다고 했으나 이제 麗史古記라는 서적은 없어 사람이 얻어 볼 도리가 없으니 徵信할 文蹟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목사 이명준이 왕에게 上言한 말이다. 이는 단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內地 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글에서 首都 漢陽의 모든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제주목사 이명준조차도 고려사의 존재를 몰라서 麗史古記라고 하여 막연하게 고려시대의 어떤 古文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아 문종 1년(1451) 완성된 고려사는 서울에서건 제주에서건 민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아마도 왕실도서관으로서 특별히 허가를 얻은 藝文館이나 春秋館의 官員이나 이를 열람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한다.

### 3. 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성종 때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이 중수 명령에 따라 李荇(행) 등이 1530년(중종 25)에 완성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이다. 이 책은 세 차례의 讎校(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 제1차 수교는 1488년 金宗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 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명나라의 대표적인 통지인 大明一統志의 예에 따라 고적 편목이 신설되었으며, 중국의 지리서에는 없는 성씨·烽燧(봉수)의 양조도 신설되었다. 그 후에 1499년에 任士洪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여 1530년에 3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新增」의 두 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集成編으로 속에 실려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이 책은 지리적인 면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적

서적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의 지리지가 지녔던 경제·군사·행정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인물·예속·시문 등이 강화되어 있다.<sup>16)</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은 三神人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嶽出 今鎮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 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有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西海中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 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十五代孫高厚·高濤·昆弟三人 造舟渡海 泊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及厚等至 王嘉之 稱厚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令清出勝下 愛如己子 稱曰王子 于號其季曰都內 邑號曰耽羅 以初來泊耽津 而朝新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新羅 遂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sup>17)</sup>

고려사지리지(1451)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기사를 비교하면 고려사 지리지보다 79년 후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은 사소한 문장의 보조사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자를 대비해 보면, ① 太初/厥初, ② 主山北麓/鎮山北麓, ③ 紫泥封藏木/紫泥封木函, ④ 函內又有石函/內有石函, ⑤ 西海中嶽/西海中岳, ⑥ 侍三女以來/侍三女以來爾, ⑦ 以年次分娶之/以歲次分娶之, ⑧ 至十五代/十五代, ⑨ 至于耽津/泊于耽津, ⑩ 遂朝新羅/及厚等至, ⑪ 令清勝出下/令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2-13쪽.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條.

淸出昫下, ⑫ 故名之/稱王子季子曰都內, ⑬ 初泊耽津故也/以初來耽津, ⑭ 敬事國家/敬事新羅, ⑮ 遂以高爲星主/以高爲星主)(각각 고려사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저작자의 기호에 의해 약간의 字句들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지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라면 고려사지리지의 「敬事國家」가 증보동국여지승람의 「敬事新羅」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名分에 집착하는 조선시대 官人들에게 國家하면 朝鮮國家를 뜻하므로 「新羅」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려사지리지의 기사를 添削(첨삭)없이 그대로 轉寫(전사)한 것이라 하겠다. 관찬 지리서들의 삼신인 기사는 원형의 세종실록지리지를 원형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뒤에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각 전재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조선조 관찬지리지 찬자들의 심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들에게는 일단 어떤 原型[세종실록지리지]가 정해지면 이를 충실하게 지켜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지 무엇을 혁신하려는 개인의 독창성은 기피의 대상이었지 않는가 한다. 이는 孔子의 「述而不作」<sup>18)</sup>하라는 학술적 태도를 묵수한 것이었다.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 이래 거의 100년에 걸쳐 간행된 세 개의 관찬 지리서들의 내용이 부수적 字句차이 이외에는 동일하게 되었다.

### Ⅲ. 私撰文書

#### 1. 星主高氏家傳

태종 16년(1416) 丙申 7月, 鄭以품가 고득종의 부탁을 받고 지은 私撰文書이다. 주의할 것은 성주고씨가전이 한 독립된 文卷이 아니라 東文

18) 『論語』, 述而：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選<sup>19)</sup>이란 시문집에 수록되어 후대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이오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347(충목왕 3)~1434(세종 16).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1376년(우왕 2) 예문관검열이 된 뒤, 삼사도사, 공조·예조의 정랑, 典校副丞 등을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成均館樂(악)正이 되었으며, 兵曹議郎, 예문관의 직제학, 사성을 역임하였다. 1403년(태종 3) 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1405년 3월에金科와 함께 생원시를 관장하였다. 1409년 兵書習讀提調를 거쳐 동지춘추관사를 겸임, 太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13년 태조실록 편찬에 대한 노고로 예문관대제학이 되면서 知貢舉를 겸하였다. 1418년 72세로 致仕하였다. 세종이 즉위하자 胎室證考使가 되어 진주 각처를 다녔고, 속현인 昆明(곤명)을 태실소로 정하게 하였다. 老成한 덕이 있다 하여 崇(송)政大夫에 올랐다. 젊어서는 李穡(색)·鄭夢周의 문인과 교류하였고, 늙어서는 成石璘(린)·李行 등과 교류하였다. 특히 그는 詩의 재능이 뛰어났다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郊隱集·火藥庫記가 있다. 시호는 文定이다.」<sup>20)</sup> 그리고 성주고씨가전을 지을 때 관직은 藝文館大提學(正2品)<sup>21)</sup>이었다.

19) 東文選 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동방미디어 주식회사, URL: <http://www.encykorea.com>) 검색 결과: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 본문 130권, 목록 3권, 합 133권 45책. 활자본·목판본. 당시 대제학이던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盧思愼·姜希孟(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을 포함한 찬집관(纂集官) 23인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20) 정이오 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900쪽.

21) 藝文館 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판, 검색결과: 조선시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하여 짓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원봉성(元鳳省)·사림원(詞林院)·문한서(文翰署)·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4관(館) 또는 관각(館閣)의 하나이다.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



星主高氏家傳은 「神人」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秀曰漢擊 宛在雲海渺茫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毛興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良乙那夫乙那 而高乙那即高氏與祖也 俱漁獵以爲食 譜云日本國主生女七人 遺四女于丹狄國 丹狄即所謂赤狄之種也 命其女三曰西南海有山孕秀生神人三昆季 將建國無配偶 若繫可往事之 後世子孫必繁衍盛多矣 乘之以全木船 兼備五穀牛馬之種 且使神人衛而送之 至耽羅東海之濱 神子三人 出獵遇之 其衛護神人乃紅鞞紫衫者也 陵空而去 三子分娶之 卜毛興窟近地以居 數年間產業俱就 其後漸大 至高乙那十五世孫高厚 與其弟高淸 將朝見新羅 有客星先現 觀臺報云異邦神人來朝之徵也 既而高厚兄弟渡海 初泊耽津 遂至新羅 王喜待之 以客星先現之故 賜高厚爵星主 且令高淸 出王之胯下 愛如己子 爲王子 賜邑號曰耽羅 蓋自耽津至新羅故也 羅史載之甚詳 及前朝太祖統三之初 星主高自堅 王子良且美 即良乙那之後 改以良聲相近也 世一朝見太祖待以優渥 晝日三接 飲食供帳 殆擬王者 自率從至於權夫 賚予稠疊 蓋所以寵異之也 然世襲星主王子而以 未有筮仕王國而大顯者 高維始以賓貢 靖王乙酉首中南省試 明年丙戌李作挺榜第三人 官至右僕射.<sup>22)</sup>

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대제학(정2품)은 나라의 문헌(文翰)을 주관하며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봉교 이하는 한림(翰林)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 22) 鄭以吾 撰(대종 16년[1416], 丙申 7月), 「星主高氏家傳」, 「東文選」 卷101 傳(『동문선』 8, 민족문화추진회, 1985, 650-652쪽): [한글 번역]: 탐라의 경내에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라산(漢拏山)이라 한다. 구름과 바다가 아득한 위에 완전히 있는데 그의 신령한 화기를 내리어 神人을 산의 북쪽인 모흥혈(毛興穴)에 탄강시켰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솟아났는데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라 한다. 그런데 고을나는 곧 고씨의 시조이다. 모두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먹고 지냈다. 족보(族譜)에 이르기를, “일본국주의 임금이 딸 일곱을 낳았는데, 딸 넷은 단적국(丹狄國)으로 보냈다. 단적은 곧 이른바 적적(赤狄)의 종족이다. 그 딸 셋에게 명령하기를, ‘서남쪽 바다에 산이 있어서 그 산이 잉태하여 神人 3 형제를 낳았는데, 국가를 세우려하는 배필이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를 섬기라. 후세에 자손이 반드시 번영하여 많아질 것이다.’하고 그들을 배에 태우고 오곡(五穀)의 씨앗과 마소(牛馬)까지 갖추어 또한 神人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그들을 보냈다.

이 문서는 三神人 기사가 나오는 조선전기 6종 문서들 중에 가장 이른 것이다. 정이오는 고득중이 보여준 고씨 가문의 家譜(가보) 형식으로 된 「古記」를 토대로 하여 적당히 저술해 놓은 것 같다. 가보는 고려시기에 과거나 임관을 위해 해당 관청에 제출했던 간단한 家系를 적은 종류로서 조선 중기 이후에 성행된 族譜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성주고씨가전에는 고려사지리지에 없는 구절, 즉 「日本國主生七女 遣四女于丹狄國 丹狄卽所謂赤狄之種也」이 보인다. 여기 「丹狄(단적)」이란 붉은 북쪽 오랑캐를 의미하는 契丹(거란)을 멸시하여 부른 말이다.<sup>23)</sup> 그러나 여기 丹狄은 거란보다도 元宗 卽位年(1260)~공민왕5년(1356)의 반원정책들을 펼 때까지 고려를 지배했던 元의 주체인 몽골족을 가리킨 것 같다. 또한 이것이 남쪽 蠻(만)族인 倭[日本]과 대비된다. 정이오는 고려멸망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조선초기 인물로서 고려를 위협했던 남북의 異民族에 대한 적개심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는 고려사지리지의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구절이 생략되었다. 정이오는 이를 단지 「卜毛興窟近地以居」라 간단히 적어놓았다.

탐라의 동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신인의 아들 세 사람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들과 만났는데, 그를 보호하고 온 신인은 곧 붉은 가죽 띠를 띠고 자줏빛 장삼을 입었는데 공중으로 날아서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누어서 그들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모흥굴(毛興窟)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년을 지나는 동안 살림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 후손이 차츰 커졌다. 고을나의 15 세손인 고후(高厚)에 이르러 그의 아우인 고청(高淸)과 장차 신라에 조회하려 하는데, 객성(客星)이 먼저 나타났다. 관대(觀臺)에서 이르기를, '다른 나라에서 신인이 조회하러 올 징조입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고후의 형제가 바다를 건너서 치음으로 탐진(耽津)에 닿아서 드디어 신라에 이르렀다. 임금은 반가이 대접하고 객성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고후에게 宥主라는 작위(爵位)를 주고, 또한 고청은 임금의 다리 밑으로 기어나오게 하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여 王子를 삼고, 고을의 칭호를 '탐라(耽羅)'라 하였다. 대개 탐진에서 신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였다. 신라의 역사에 이것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23) 丹狄條(『韓國漢字語辭典』 권1(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7), 148쪽.

여타 사항은 고려사지리지와 비슷한데, 전체로 보아 三神人 기사를 疏略하게 다루고 있다.

성주고씨가전에는 고려사지리지의 「就泉甘土肥處 [...] 第三都」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도 가능하다. 정이오가 성주고씨가전을 지은 것이 태종 16년 7월이고, 濟州牧 이외에도 大靜(대정)과 旌義(정의)에다 2縣을 설치 축성하는 등 지방행정 개편이 시행되었던 해가 태종 16년 1월이었다. 성주고씨가전은 이런 행정개편이 있는 다음 6개월 후에 작성된 셈이 된다. 중앙관인인 정이오가 변방의 세부 행정 사항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신 위에서 언급한 「丹狄」 등의 국가 국방상 문제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영동하게 이 문서에 반영했지 않는가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도의 지명들이 생략되고 있다. 심지어 고씨 가문의 발상지인 毛興穴을 毛興窟이라고 하였다. 中央官인 그가 「毛興」의 경관이 「穴」인지 「窟」인지 알 재간이 없었던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신선사상의 상용구라 할 神仙窟宅의 「窟」을 갖다 쓴 것이다. 여하튼 다른 문서들에 보이는 第一都, 第二都 등의 삼신인 分居地 명칭과 행적이 생략되고 있다.

성주고씨가전 중에 「及前朝太祖統三之初 星主高自堅 王子良且美 卽良乙那之後 改以良聲相近也 世一朝見 太祖待以優渥 晝日三接 飲食供帳 殆擬王者 自率從至於權夫 賚予稠疊 盖所以寵異之也」이란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星主 高自堅, 王子 良且美의 존재와 그를 극진히 접대하였다는 이 부분은 날조된 문구이다. 고려사는 다만 「耽羅國太子未老來朝 賜星主王子爵(고려사 태조 21년 冬12월)」라 전하고 있다. 둘 중에 原史料는 고려사이다. 그리고 고려 태조 21년(938)과 성주고씨가전의 작성(1416)하고는 478년이나 경과되어 있다. 고려초기의 기록은 매우 영성한 편인데, 정이오의 글에는 인명들, 태조의 성주·왕자에 대한 극진한 접대 상황이 자세히 말해지고 있는데 이는 그의 상상이

지 실재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없다.

성주고씨가전은 고득종이 자기 조상의 내력을 후손에게 전하려는 목적에서 당시 文名이 높은 정이오에게 청탁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가문의 墓誌銘·年譜 등을 저명한 전직 현직 高官에게 의뢰하여 짓던 당시 습관을 따른 것이다. 이런 사정은 성주고씨가전의 끝 부분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今上甲午 得宗爲義盈庫直長 條列耽羅事宜 上書闕下 盡祛巨弊 是年秋 上臨軒策士 得宗對策中乙科十三人 明年襲星主 累轉爲司憲監察·刑曹都官佐郎·禮曹佐郎 戊戌秋七月 奉使歸故鄉 士林榮之 得宗謂以吾曰 吾宗 肇基毛興之穴 自新羅式至于今 世襲星主 服事王家 赤心無已 而佞仰陳述 非托之文字 懼其湮沒 無以示來裔 然世次譜牒不全 姑以大槩爲請 以吾聞 伊尹生於空桑 傳說降於傅巖 嘗怪而疑之 及讀生民詩傳 先儒曰天地之始 固未嘗先有人也 則人固有化而生者矣 蓋天地之氣生之也 又觀得宗先世如此而後 有以知神人之生 異於人也 宜其碩大顯融 磊珂想望 無落其世職也 況吾得宗 年未而志愈謙光 觀其其奇偉節 蔚然有平章之風 迹嗚呼高氏其末艾哉 永樂十四年 丙申秋七月 日 資憲大夫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 鄭以吾 撰<sup>24)</sup>

24) 鄭以吾, 「星主高氏家傳」(「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編, 1979), 334쪽에서 재인용. [한글번역]: 지금의 임금 甲午년에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이 되어 탐라의 사정과 그에 대한 적의한 시책을 조항별로 나열하여 글을 대궐에 올리어 모두 커다란 폐단을 없앴다. 이해 가을에 임금께서 대궐에 나왔으시어 친히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득종이 대책(對策)을 지어 乙科 제 13명으로 합격하고, 이듬해에 성주의 작을 세습받고 여러 번 옮기어 사헌감찰(司憲監察)·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었다. 무술(戊戌)년 가을 7월에 사명을 받들고 고향에 돌아가니 인사들이 모두 그 날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 득종이 이오(以吾)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이 모흥혈(毛興穴)에서 기초를 세운 이후로 신라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星主의 작위를 세습하였고, 국가를 섬기어 충성심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잠깐 동안에 옛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모두 없어져서 장래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을까 두렵다. 그러나 세대의 차이라든가 족보의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여 우선 내략을 적어서 부디한다."고 하였다. 정이오는 실으니 이오(以吾)은 강

위 글에 의하면 고득종은 「今上甲午」, 즉 태종14년(1414)에 義盈庫直長(從7品)에서 시작하여 同年 과거시험 乙科에 합격하였다. 그 후에 司憲監察(正6品)·刑曹都官佐郎·禮曹佐郎(正6品)에 승진하였고 「戊戌」(태종 18년, 1418)에 국왕 使節로서 본도에 歸鄉하자 上林이 영예롭게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모순이 있다. 정이오가 성주고씨가전을 永樂 14년(태종 16년, 1416) 저작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2년 뒤인 「戊戌(태종 18년, 1418)」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이오가 자신의 저작 연대를 착오하였다든지 혹은 후대 고씨 가문에서 자기 조상의 관직을 높이려고 가필한 데서 생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후자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이오가 태종 16년 성주고씨가전을 지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태종 18년에 고득종이 敬差官<sup>25)</sup>이 되어 귀향한 일

상(空桑)에서 낳았고, 부열(傳說)은 부암(傅巖)에서 낳았다 하기에 일찍이 과상스럽게 여기고 이를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生民篇의 詩傳을 읽어 본 즉 옛 학자가 이르기를, “천지가 시작할 때에는 본시 인간이 없었다. 곧 인간은 조화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대개 천지의 기운이 이것을 낳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또한 得宗의 先代의 사적이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신인의 출생이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몸이 석대(碩大)하며 업적이 뚜렷한 인물이 두드러지게 서로 계속되어 그의 세습적인 관직을 떨어뜨리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하물며 득종은 나이가 아직 30도 못되었는데 뜻이 더욱 겸손하며 빛나고 그 기이한 기운과 위대한 기질이 씩씩하게 平章의 기등과 자취가 남아 있으니, 오호! 高氏의 운수는 그 끝이 없으리이다.

- 25)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경차관이 파견된 것은 1396년(태조 8) 8월 신유정(辛有定)을 전라·경상·충청 지방의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오유권(吳有權)을 하삼도(下三道)에, 홍유룡(洪有龍)·구성량(具成亮)을 강원도와 충청도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왜구와의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병선의 허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25) 『조선왕조실록』, 태종 18년(1418) 6월 26일: 乙巳 遣司樞署令高得宗于濟州, 將糙米六百石木綿一百五十匹 女服八件, 易換民間金銀, 將以充上國歲貢也 得宗將行, 賜單衣一襲及內藥; 세종 즉위년(1418) 10월 22일: 濟州敬差官高得宗買銀一千七百七十一兩以來. 敬差官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판, 한국정신문화원, URL: www.encykorea.com) 검색 결과: 경차관은 태종 때부터 그 임무가 대폭 늘어났다. 국방·외교상의 업무, 재정·산업상의 업무, 진계(賑濟)·구황의 업무, 옥사·추쇄(推쇄) : 불법으로 도망한 노비를 찾아내 원주인 또는 본고장으로 돌려보냄)의 업무 등이었다.

은 사실이다. 남은 것은 후대 누군가에 의해 가필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累轉爲司憲監察·刑曹都官佐郎·禮曹佐郎」 부분은 후대 고씨 후손이 고득종의 관직을 높이려고 첨가하여 놓은, 성주고씨가전에는 원래 없었던 文句라고 하겠다.

여기서 고득종은 고씨문벌이 신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주를 세습하여 국가에 봉사하여왔는데 자취를 文字로 적어두지 않으면 사적이 인멸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정이오에게 청탁한 것이다. 그러나 정이오는 고대중국 殷 나라의 名臣 이윤(伊尹), 부열(傅說)의 신비한 탄생 설화를 믿지 않았듯이 고씨의 毛興穴 湧出 이야기도 불신하였다. 그래서 아마 고득종의 청탁에 망설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詩經 生民<sup>26)</sup>의 문구와 「先儒曰」<sup>27)</sup>을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 잡고 문서를 엮은 것 같다. 여기에는 그가 유학자로서 孔子의 「不語怪力亂神」<sup>28)</sup>을 고수해야 하는 교조적 입장과 삼신인의 神異 事蹟의 서술을 청탁 받아 망설이던 중에 先儒[北宋 張載]의 말을 상기하여 글 지을 것을 결심한 심적 과정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입장에서 三神人의 신비한 탄생을 서술하기는 하되, 간략하게 서술했다. 이것이 후에 고득종에게 불만 사항이 되어 장흥고씨가승을 自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이에 관해서는 次

경차관은 주로 청림정직한 5품 이상의 관원이 뽑혔는데, 때로는 당상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26) 「詩經」, 大雅 生民之什 生民: 厥初生民 時維姜嫄 生民如何 克禋克祀 以弗無子 履帝武敏歆 攸介攸止 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 [한글번역]: 처음 백성을 낳으신 분은 바로 강원이란 분이네. 백성을 어떻게 낳으셨나? 정경히 제사지내시어 자식이 없는 나쁜 징조 쫓아내시고, 하느님의 발자국 임지말가타 밟으시자 마음 기뻐져 쉬어 미무르셨네. 곧 아기 배고 신중히 하시어 아기 낳아 기르셨으니 이분이 바로 후작이시네.

27) 生民之什, 集傳(「漢文大系」 12, 毛詩集傳, 毛詩 卷7 第17, 訓詁傳 第24, 富山房, 1953, 2쪽): 而張子曰 天地之始 固未嘗先有人也 則人固有化而生者矣 蓋天地之氣生之也. 張子: 北宋의 張載(1020-1077).

28) 「論語」述而: 子不語怪力亂神.

節에서 다루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성주고씨가 전, 고려사지리지의 古記, 장흥고씨가승, 그리고 영주지 등은 족보가 아니라 家譜, 家牒 종류의 간단한 家系圖의 序文과 같은 것이었다. 고득중은 이런 문서를 가져다가 정이오에게 보였는데, 이것이 성주고씨가전 중의 「譜云 日本國主生女七人」의 「譜云」의 「譜」가 아닌가 한다.

李樹健은 고려시대의 성씨에 관하여 다음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文宗朝 이래 氏族·家譜·譜牒·家牒·世譜·族譜 등의 용어는 있어왔지만, 이들은 모두 15세기부터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族譜」와는 차원이 달랐다. 고려시기에는 三韓功臣의 登第, 郡縣土姓의 分定 및 官制·科擧制의 정비에 따라 중앙정부는 唐代의 氏族志·姓望表와 같은 郡縣姓氏錄, 功臣들에 주었던 「錄券」 등이 비치되어 任官과 銓注(전주)에 활용했던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이런 성씨관계자료는 대개 古文書의 형태로 전래되었다. 거기에는 각 가문이 자기 조상에 대해 그럴듯한 해석을 가하여 改姓·改名 사실을 附會했던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sup>30)</sup>

필자는 이러한 고려시대의 성씨관계자료들에 비추어 보아, 고려사 지리지의 「古記」란 靖(정)宗代 高維(유)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서 조정에 제출한 家譜이거나 家牒의 부류가 아니었나 한다.<sup>31)</sup> 왜냐하면 고려 시기 과거에 응시하거나 관직에 취임하려면 해당자는 家系記錄인 소규모 족보를 제출하여 그 가부를 심사 받은 다음에야 급제나 임관이 가능하였다. 과거절차법에 따르면 擧子是 시험이 시행되기 일정한 기간 이

29)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23쪽.

30) 위의 책, 25쪽.

31) 진영일, 「고려기 탐라의 '屋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29-30쪽.

전에 「行卷家狀(장)」을 貢院에 제출하게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해당자의 성명과 本貫·四祖 및 응시자격·生年·4祖의 관직 등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당인의 家狀[조상의 행적 기록]의 허물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과거시험 그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up>32)</sup> 그래서 고려시기에 과거를 응시하는 가문들은 소규모일망정 족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33)</sup> 그러나 아직 고유가 활동하던 하던 문종대(1046-1083)에는 아직 종합적인 족보는 없었다. 조선왕조에 와서 유행된 綜合譜와 같은 형태를 띤 족보는 14세기경, 곧 고려 후기에 비롯되었다고 하겠다.<sup>34)</sup>

가장 이른 시기 간행된 족보로서 15세기의 安東權氏成化譜(1476)와 16세기의 文化柳氏嘉靖譜(156)가 현존한다. 이 두 족보는 조선전기 족보를 대표할 2대 족보라 할 수 있는데, 후자는 전자의 편찬체제와 간행 방식을 답습하였으니 우리는 안동권씨성화보를 전기 족보의 전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sup>35)</sup>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 출현하여 현재 통용되는 族譜와 그보다 앞선 고려기·조선초기의 家譜類의 문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족보에 대해 노명호는 다음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족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른 점이 있는데, 한 시조로부터 일정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 후손들을 가

32) 박용운, 『高麗時代史』(일지사, 1993), 70쪽.

33) 崔在錫, 『高麗時代의 親族組織』(『歷史學報』 94·95 합집, 1985), 202-204쪽. 여기서 墓誌銘에 의하면 族譜는 家譜, 家牒, 世譜, 譜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34)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일조각, 2004) 72쪽: 적어도 고려 후기 우왕 8년(1382) 이전에 만들어진 「鄭氏家傳」에는 배우자의 이미지의 왼쪽 본손과 외손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또 후대 청주 정씨 족보의 편찬에서 창시보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초기 족보의 특징으로 열거되는 주요한 두 개의 사항이 이 고려 후기 서원 정씨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에서 족보의 출현은 고려 후기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35)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한국사 시민강좌』 24, 일조각, 1999), 40-41쪽.



「古耽羅國王 高乙那之后裔也」(상소문)이란 구절들이 대응된다. 고봉정의 상소문 구절들 중 한 단어가 영주지의 그것하고 같다. 高氏가 옛날 「耽羅國王」이었다는 것은 고봉정이 고씨 시조의 序次가 上位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요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상소문에서 「一島之人心捨良夫而歸于高是乎等以 高乙那 遂統爲王於三邑之地 而良乙那爲臣 夫乙那爲民」이라 하여 高乙那가 제주 三邑의 왕이었다고 한다. 또 영주지에서도 「百濟東城王 [...]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이라 하여 「耽羅王」이 등장한다. 양쪽 다 「王」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은 사소한 단어의 우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매우 大義名分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는 景福宮에 奉安된 朝鮮國王뿐이었지 여타 누구도 이런 호칭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문서들에서는 사찬이건 관찬이건 불문하고 「國王」, 「王」 자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주고씨가전에서는 「邑號曰耽羅」를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서는 「以高爲君長 國號毛羅」(장흥고씨가승), 「高乙那爲瀛洲君長」(高氏族譜)이라 하였다. 하여튼 耽羅 또는 毛羅라는 국호가 아닌 지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君長」 등의 중립적인 어구가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소문 중에 「國王」, 「王」 문구는 매우 僭越(참월) 지극한 언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을 고봉정이 쓴 것은 상소문 중에 「高乙那 遂統爲王於三邑之地 而良乙那爲臣 夫乙那爲民」라 한 것과 같이 옛날에 고을나는 탐라국왕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씨 시조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면을 생각 못한 탓이라 하겠다. 하여튼 조선시대에는 침월하여 내의명분에 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 「國王」이나 「王」이란 어구를 쓴 두 문건은 동일한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혹자는 이런 어구비교는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소문 중 여타 부분은 그

저 고씨에 대한 평범한 既知의 데이터를 열거한 정도이다. 따라서 이런 고을나가 고대 탐라국왕이었다는 문구만큼은 고봉정의 독특한 필법으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영주지와 상소문은 동일한 인물에 의한 작품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그 작자를 익명으로 한 것도 문권의 출처를 애매모호하게 하여 그래서 신비롭게 함으로써 작품에다 「古代性」을 확보하려는 고의적 의도에서였다고 생각된다.

상술한 것을 정리하여 보자면 제주 유생 고봉정이 삼성 서차를 바로 잡겠다고 상경하여 정조 행차 때에 상소를 했다(정조 10년). 왕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 하였으나 14년 동안 진전이 없고 삼성 사이에 분규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제주목사 정관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임하였다(정조 24년). 이에 정관휘는 제주 삼성 서차에 관한 문적을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에 대한 증거자료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장본인 고봉정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고봉정은 지금 우리가 영주지라고 부르는 문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제주목사 정관휘는 이와 다른 문적들을 예조에 보냈다. 그 후 영주지는 어명과 관련된 문서이기에 왕실도서 보관소인 선원전에 수장되었다가 후에 장서각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영주지는 고씨 세차 문제로 정조 24년(1800) 고봉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게 필자의 추정이다. 이렇게 정조의 어명, 예조, 그리고 제주목사의 증거자료 수집과 보고라는 사정이 없었더라면, 조선왕조에서도 가장 변방이라 할 제주, 그것도 일개 가문에 불과한 고씨 시조에 관한 문서 한편이 왕실도서에 수장된 연유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주지가 왕실도서의 하나로 장서각에 수장되었다는 것 자체가 필자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주지가 이보다 후대에 작성될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가령 그렇다고 해도 그 문서가 왕실도서로서 장서각에 보관될 리가 만무하다. 왜냐 하면 정조는 바로 이 해, 즉 재위 24년(1800) 6월에 서거하였고, 다음 왕

으로는 제 23대 순조가 즉위했다. 이후 어떤 임금도 제주 삼성사 서차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후대에 그런 문서가 있었다하더라도 왕의 명령, 곧 御命과 무관해서 민간의 어느 골방에서 흙먼지나 뒤집어쓰고 나뒹굴고 있을 것이지, 그것이 왕실도서들과 나란히 장서각의 한 자리를 차지할 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들 것은 「영주」를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판<sup>54)</sup>에서 검색해 보면 982건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漢字語 「瀛洲」 또는 「瀛州」에 해당되는 항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제주와 관련된 영주 지명이 공식석상에서 조선 역대 왕과 대신의 입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이런 신선사상에서 유래하는 영주 지명은 제주도 이외에는 조선시대 전 기간 중 조선팔도 어디에도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는 제주 민간에서나 통용되는 특수 코드였다고 하겠다.

영주지는 1915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장서각에 수장되고 있다. 장서각의 설립 경위를 보면, 1911년 李王家에 의하여 설립된 李王職圖書館. 李王職은 각 군영으로 모은 九衛隊 수장서와 창덕궁 璿源殿(선원전) 봉안도서, 새로 구입한 도서 3,528책과 무주 赤裳(상)山 史庫에서 이관한 도서 5,519책 등을 선원전에 모아 장서각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장서각은 조선 말기와 혼란기를 거쳐, 1911년 6월 19일에 「李王職藏書閣」으로 건립을 보게 되었다. 이 도서들은 1915년에 창경궁 안에 신축된 4

54)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판: URL: <http://sillok.history.go.kr>. 고려시대에는 瀛州로서 검색 결과가 2건 나오는데 전라도 古阜郡을 지칭했다(URL: <http://www.koryo.or.kr/koryo>): 高麗史 地理志 11, 全羅道 古阜郡 古阜郡, 本百濟古沙夫里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太祖十九年, 稱瀛州觀察使, 光宗二年, 爲安南都護府, 顯宗十年, 復今名, 忠烈王時, 併于靈光, 尋復舊, 屬郡一·縣六; 成宗十四年, 以·全州·瀛州·淳州·馬州等州縣, 爲江南道, 羅州·光州·靜州·昇州·貝州·潭州·朗州等州縣, 爲海陽道, 顯宗九年, 合爲全羅道, 領牧二·府二·郡十八·縣八十二.

층 서고에 이전되었으며, 1918년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 지은 서고를 「藏書閣」이라 이름하였다. 수장서의 특징은 주로 왕실관계의 귀중 자료로 구성되어있는 점이다.<sup>55)</sup>

#### IV. 漢拏山과 神仙

여기서는 단지 영주지만이 아니라 다른 5종의 관찬사찬 문서들에 나타난 신선사상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찰하겠다. 이들 서책과 문서들의 작자들은 공통되게 탐라를 태초 神仙들이 노닐었던 仙界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仙界란 바로 道家的 宇宙論의 반영이었다. 李演載는 신선사를 반영된 고려시대 漢詩를 분석하여 다음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다. 仙界는 흔히 天仙界, 地仙界, 水仙界로 구분된다. ① 天仙界의 詩語는 天徑, 天街, 銀漢, 銀河, 月桂 등이다. ② 地仙界의 詩語로서 仙境, 金闕, 靑丘, 伽耶山, 瀛州, 三神山, 金塘, 蓬萊山, 方丈, 神州, 仙山, 武陵園 등이 있다. ③ 水仙界에는 碧海, 蓮宮, 碧波, 仙島, 仙洲 등의 시어가 속한다. 이 가운데서도 天仙界가 다른 지선계와 수선계에 비하여 가장 상품 선계로 관념 된다. 천선계의 형상은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매우 환상적이다. 지선계와 수선계는 천선계보다 하품 세계로 관념 된다. 보통 천선은 장생불사할 수 있다. 그러나 地仙과 水仙은 天仙이 되지 못한 존재로서 長生은 할 수 있지만 不死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천선계보다 하품 세계로 관념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지선계와 수선계는 현실적인 이미지가 농후하다. 현실의 문물 제도와 경관이 투사되어 나타나기로는 천선계나 地仙·水仙界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천선계보다는 지, 수선계가 훨씬 더 현실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된다. 지선·수선

55) 장서각 조(『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94-195쪽.

계의 시어로는 蓬萊, 瀛州, 方丈, 蓬島 등을 위시하여 芝田, 珠洞, 玄圃, 瓊堦(경지), 瓊楣(경미), 丹丘, 丹陵, 海霞, 瓊潭, 瓊海, 水宮, 寒路 등으로 洞, 丘, 堦, 楣, 田, 路, 潭, 海, 峰 등 현실성이 짙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sup>56)</sup>

여기서 필자는 6종의 관찬사찬 문서들과 관계되는 仙界의 시적 언어를 다음 같이 분류해 보았다.

- ① 天仙界 : 天河, 北斗星, 銀漢, 星宮.
- ② 地仙界 : 仙境, 瀛州, 三神山, 金塘, 蓬萊山, 方丈.
- ③ 水仙界 : 碧海, 碧波, 四海.
- ④ 仙人 : 仙, 青衣童子, 童男童女, 神仙, 仙子.
- ⑤ 瑞祥(서상) : 紫氣, 紫雲, 紫煙, 碧煙.

장흥고씨가승의 예를 보면, 이것이 신선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한라산을 神仙鄉라하며, 또한 고씨 조상들이 바로 신선들이었다고 한다. 瀛州 · 三神山 · 金塘은 바로 地仙界를 시적 언어로 나타낸 것이고, 碧浪國은 「碧波」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水仙界에 속한다. 기타 신선사상과 연관된 어구들로서 瑞象을 의미하는 「紫霄閣」의 「紫霄(자소)」, 「青衣處子」의 「青衣」, 「紫氣」 구절들도 神仙이거나 神仙鄉을 상징하는 시적 언어라고 하겠다.

이런 신선사상의 역사적 연원은 秦(진)始皇이 진하를 통일한(221 B.C.) 후에 功德을 石刻하고 方士로 하여금 入海하여 神仙을 찾게 했다는 司馬遷(진)의 저작인 史記에서 유래한다.

秦始皇 28年: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州(正義: 漢書郊祀志云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蓋會有至者 諸仙人

56) 李演載, 「高麗詩와 神仙思想의 理解」(亞細亞文化社, 1969) 152-172쪽.

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白銀爲宮闕 未至 望之如雲 及至三神山 乃居水下臨之 患且至 風輒引船而去 終莫能至云 世主莫不甘心焉 僊人居之 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正義：括地志云 賣洲在東海中 秦始皇使徐福將童男女入海求僊人 止住此洲 共數萬家 至今洲上人有至會稽市易者 吳人外國圖云 賣洲去瑯琊萬里。57)

장흥고씨가승과 영주지 서두를 장식하는 「瀛州」는 바로 이런 고대 중국의 三神山 전승을 제주도에 假託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三神山은 地仙界에 속하여, 여기에는 仙人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不死之藥」 등이 있다는 仙人 설화가 있었다. 그래서 진시황 28년(219 B.C.) 徐市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童男童女 數千人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서 仙人을 구했다고 한다. 이런 신선과 바다 가운데 있다는 三神山 전설은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증폭되어 후대에 제주민은 제주를 三神山[瀛州, 方丈, 蓬萊]의 하나로 여기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본도의 한라산은 이런

57) 司馬遷, 『史記』 卷 6, 本紀, 秦始皇 28年. [한글번역-필자]: 제(齊)나라의 방사 서시 등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세 개의 神山이 있는데,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라 하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재계하고 나서 동남동녀를 데리고 신선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서시를 보내서 수 천명의 동남동녀를 선발하여 바다로 들어가서 신선을 찾도록 하였다. 이 글에는 두 개의 「正義」의 註釋이 있다. ① 「正義」의 三神山 주석: 한서교사지(漢書郊祀志)에 이르기를 세 개의 神山이 발해(渤海) 바다 가운데 있다. 사람 세상과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마침 어떤 자가 이르러 보니, 선인들과 불사지약(不死之藥)이 있었고, 또한 물건, 새, 짐승의 색깔이 모두 희었고, 궁궐은 황금과 白銀으로 지어져 있었다. 때마침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삼신산을 찾아 나서니, 멀리서 섬을 쳐다보니 구름과 같았고, 三神山 가까이 이르러 물 따라 가서 막 닿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배를 이끌고 섬과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섬에 착륙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는 신선들이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② 괘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단주(賣洲)는 東海 중에 있다. 진시황이 서복(徐福)을 시켜 동남동녀를 데리고 바다로 나아가 선인(仙人)을 찾게 했다. 이 곳에는 數萬家の 인구가 살고 있었고, 회계(會稽) 지방에서 와서 장식하는 자들도 있었다. 오인의국도(吳人外國圖)에 이르기를 단주는 랑야(瑯琊)에서 만리나 떨어져 있다 하였다.

삼신산 전설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여튼 제주의 상징인 「漢擎山」은 신선사상에서는 地仙界에 속한다. 한라산은 天仙界를 의미하는 漢水, 곧 銀河水를 끌어당길[擎] 수 있을 정도로 天上에 맞닿아 있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漢水란 天徑, 銀漢, 銀宮, 天關 등으로도 표현되는 天仙界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라산은 地仙界 자체는 아니고 天仙界를 매개해 주는 地仙界의 중심, 즉 신령한 靈山이라 하겠다.

6종 문서들 중에 漢擎山이란 지명은 관찬지리지서들인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보이지 않고, 사찬문서들인 성주고씨가전, 장흥고씨가승, 영주지에서만 나온다.<sup>58)</sup> 이는 관찬문서 작자인 관인들이 본도를 神仙鄉, 그리고 한라산을 천선계의 상징으로 여기는 의식이 없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반면 사찬문서들은 탐라를 神仙鄉, 그리고 탄생 시조들을 神人의 후예로 여기는 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水仙界의 「碧浪國」 언어 사용에도 해당된다. 「我是日本國使」(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와 「日本國主」(성주고씨가전), 「東海碧浪國使」(장흥고씨가승, 영주지)로 대비가 된다. 이것도 관찬 편자들이 고씨 조상의 신선 후손설에 대해 별다른 흥미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이중에 성주고씨가전은 예외로 관찬 문서들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성주고씨가전의 작자 정이오는 조선초기 고관으로서 비록 사찬 성주고씨가전을 지었으나 어디까지나 유학 관인의 입장에서 신인의 신비한 사적을 「怪力亂神」의 종류로 보아 회의적이었다.

하여튼 사찬 문집 등이 아닌 正史라 할 高麗史에서 한라산 山名이 처

58) 관찬문서들: 「其主山北麓」(세종실록지리지), 「其主山北麓」(고려사지리지), 「今鎮山北麓」(신증동국여지승람); 사찬문서들: 「漢擎」(성주고씨가전), 「漢擎山北麓」, 「一日登漢擎山」(영주지).

유 등장하는 것은 공민왕 23년(1374)崔瑩(최영)의 본도에서 발생한 牧胡 정벌 때였다.

[恭愍王 23年(1374)] 太祖高皇帝 遣林密等 令我取濟州馬二千匹 以進 哈赤石迭里必思 肖古禿不花 觀音保等 只送三百匹 密等怒 王遂議代濟州 七月 以瑩 爲楊廣 全羅 慶尙道都統使 [...] 領戰艦三百十四 士卒二萬五千六百 人 討之 教曰 耽羅 元屬本朝 世修職貢 垂五百載 近牧胡石迭里必思 肖古禿不花 觀音保等 殺我使臣 奴我百姓 罪惡貫盈 今授瑩節鉞 往征 其督諸軍 剋期殲戮 賞罰 用命 不用命 無憚大吏 [...] 翼日 至濟州 瑩 部署諸將 四面分攻 石迭里必思 肖古禿不花 觀音保等 以三千餘騎 拒於明月浦 瑩遣前濟州牧使朴允清 以書諭之曰 今興兵問罪 勢不得已 除賊魁外 星主 王子 上官 軍民 宜悉按堵如故 雖黨賊者 降附則亦從寬典 如或違逆 大兵一臨 玉石俱焚 悔無及矣 與諸將下岸 師逡巡不進 乃斬一裨將以徇 於是 大軍齊進 左右奮擊 大破之 乘勝逐北至三十里 暮還明月浦 沿涯爲營 賊殺安撫使 李下生 諸將屯漢拏山下 休兵 時我師 多獲賊馬 悉爲騎兵矣 賊魁三人 來挑戰 陽敗而走 將誘致曉星五音之野 以騎兵之 瑩知其謀 命銳卒急逐 賊魁遁走 入山南虎島 瑩遣前副令鄭龍 領輕艦四十 圍之 自率精兵 繼進 石迭里必思 率妻子 與其黨數十人 乃出 於是 肖古禿不花 觀音保 知不免 投崖而死 瑩腰斬石迭里必思并其三子 又斬肖古禿不花 觀音保首 遣知兵馬使 安柱 以獻 東道哈赤石多時萬 趙莊忽古孫等 猶率數百人 據城不下 瑩率諸將攻之 賊潰走 追獲之 搜捕餘黨 盡殺之 死者相枕 得金牌九 銀牌十 印信三十 馬一千匹 印信付萬戶 安撫使 星主 王子 馬分養于諸州卒 有殺馬牛 食者 或斬首 或斷臂 以徇 士卒股慄 秋毫無敢犯者 十月 瑩與諸將班師 王已薨 復命于梓宮 痛哭失聲.<sup>59)</sup>

59) 고려사 열전 26 諸臣 崔瑩. [한글번역] 명(明)의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임밀(林密) 등을 보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제주(濟州)의 말 2,000필(匹)을 취하여서 보내라 하였는데 합적(合赤)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다만 300필(匹)을 보내었으므로 임밀(林密) 등이 노(怒)하는지라 왕이 드디어 제주(濟州)를 치기로 의론하였다. 7월에 최영(崔瑩)으로 양광·전라·경상 도통사(楊廣全羅慶尙都統使)를 삼고 [...] 전함(戰艦) 314척과 사졸(士卒) 25,600인을 거느리고 이를 치게 하고 교(教)하기를, “담라(耽羅)는 본래 본조(本朝)



공민왕 23년(1374) 明太祖(洪武帝, 1368-1398)가 濟州馬 2천 필을 고

에 붙여 대대로 직공(職貢)을 닦아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근래에 목호(牧胡)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우리 사신을 죽이고 우리 백성을 노예화하여 죄악이 천지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제 최영(崔瑩)에게 절월(節鉞)을 주어 가서 치게 하노니 모든 군사를 독려하여 기일을 정하고 섬멸할지이다. 병을 들고 명을 듣지 않음을 상주고 벌함에 있어 벼슬이 높다하여 기탄함이 없을 지이다.”고 하였다. [...] 이튿날 제주(濟州)에 이르러 최영(崔瑩)이 재장(諸將)을 부서(副署)하여 사면으로 나누어 치니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3천여 기(騎)로써 명월포(明月浦)에서 항거하는지라 최영(崔瑩)이 전 제주 목사(前濟州牧使) 박윤칭(朴允淸)을 보내어 글로써 효유하기를, “이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 것은 부득이함이라 적과를 제외하고 성주(城主) 왕자(王子) 토관(土官) 군민(軍民)들은 마땅히 다 본래대로 안도(安堵)할 것이며 비록 적의 당류라도 항복하여 오면 또한 관전(寬典)을 베풀 것이요 만약 혹 위반하고 거역하여 대군(大軍)이 한번 다다르면 옥석(玉石)이 함께 타서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재장(諸將)과 더불어 바닷가에 내리니 군사가 방황하고 나아가지 않는지라 이에 한 비장(裨將)을 배어서 순시하니 대군이 함께 나아가 좌우로 펼쳐 쳐서 크게 깨뜨리고 이김을 타서 패잔병을 쫓아 30리까지 이르렀다가 지물이 명월포(明月浦)에 돌아와 물가를 따라 진을 쳤다. 적이 안무사(安撫使) 이하생(李下生)을 죽이거늘 모든 장수가 한라산(漢拏山) 아래 진을 치고 군사를 휴식(休息)시켰는데 이때 우리 군사가 많이 적의 말을 얻어 모두 기병(騎兵)이 되었다. 적의 괴수 세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어왔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 장차 효성(曉星) 오음(五音)의 들에 유인하여 이르게 하고 기병(騎兵)으로써 덮치려 하거늘 최영(崔瑩)이 그 꾀를 알고 날랜 군사를 명하여 급히 쫓으니 적의 괴수가 도망하여 산 남쪽 호도(虎島)에 들어가는지라 최영(崔瑩)이 전 부령(前副令) 정룡(鄭龍)을 보내어 날랜 배 40척을 거느리고 이를 포위하고 스스로 정병을 거느리고 이어 나아가니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가 처자(妻子)와 그 당류 수십명을 거느리고 나오매 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관음보(觀音保)가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벼랑에 몸을 던져 죽었다. 최영(崔瑩)이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와 그 세 아들은 허리를 베고 또 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관음보(觀音保)의 머리를 베어 지병마사(知兵馬事) 안주(安柱)를 보내어 바치게 하였다. 동도(東道)에 합치(哈赤) 석다시만(石多時萬)·조장홀고손(趙莊忽古孫) 등이 아직도 수백명을 거느리고 성에 웅거하여 항복하지 않는지라 최영(崔瑩)이 재장(諸將)을 기리고 치니 적이 무너져 넘어가기를 쫓아가서 겁과 님은 무리를 찾아 잡아서 다 죽이니 죽은 자가 서로 배개를 삼았다. 금패(金牌) 9, 은패(銀牌) 10, 인신(印信) 30, 마(馬) 1,000필(匹)을 얻어 인신(印信)은 만호(萬戶) 안무사(安撫使)에 부치고 성주(城主) 왕자(王子)의 말은 여러 주(州)에 나누어 기르게 하였다. 군사가 마우(馬牛)를 죽여 먹는 자가 있거늘 혹 머리를 베고 혹 팔을 끊어서 순시하니 사졸이 두리위히이 추호(秋毫)도 감히 범하는 자가 없었다. 10월에 최영(崔瑩)이 모는 상수와

려에 요구하여 오자 당시 제주 牧胡였던 石迭里必思(석질리필사), 肖古禿不花(초고독불화) 등이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최영을 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로 삼아 제주에 가서 이를 진압하게 하였다. 그 후 정부군이 明月浦에 상륙하고, 按撫使 李下生은 諸將을 漢拏山에서 休兵하였다 한다(諸將屯漢拏山下休兵). 이것이 正史 고려사에 보이는 한라산에 대한 첫 기록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선사상에서 「漢拏山」은 天仙界를 의미하였으며, 글자 그대로 天仙界를 뜻하는 漢水, 즉 銀河水를 끌어당길[拏] 수 있을 정도로 天上에 맞닿아 있는 높은 산이었다. 한라산은 조선 세종 32년(1450) 저작인 장흥고씨가승뿐만이 이미 고려 후기 공민왕대(1351-1374) 이미 신선이 사는 靈山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이후 한라산은 조선초기가 되면 빈번하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데, 몇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太祖 6年 3월 8日: 耽羅: 蒼蒼一點漢羅山, 遠在洪濤浩渺間 人動星芒來海國, 馬生龍種入天閑 地偏民業猶生遂, 風便商帆僅往還 聖代職方修版籍, 此邦雖陋不須刪.<sup>60)</sup>
- ② 太宗 18年 4月 11日: 丁酉/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東西道置靜海鎮 聚軍馬沿邊防禦 而東西道都司守 各以附近軍馬考察 兼任牧場 然地大民稠 訴訟煩多 東西道山南接人往來牧使所在

함께 군사를 돌리니 왕이 이미 흥서(薨逝)하였는지라 재궁(梓宮)에 복명(復命)하고 통곡하여 목이 쉬었다.

- 60) 『조선왕조실록』, 태조 6년(1397) 3월 8일: 洪武帝[明太祖, 朱元璋, 1368-1398]의 御製詩: 탐라(耽羅): “푸르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漢羅山)이, 만경창과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사람이 별[星芒]을 움직여 바다 나라에 왔었고, 말은 용의 씨를 낳아서 천한(天閑)에 들어갔다오. 땅은 궁벽되나 백성들이 업이 있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하면 장삿배가 겨우 오고가고. 성명의 시대에 직방(職方)에서 판적(版籍)을 꾸밀 때, 그 고장 누추하지만 부디 빠치지 마음소서.” 하고

本邑 非徒辛艱 農時往返 其弊不小<sup>61)</sup>

- ③ 太宗 16年 5月 6日: 禮曹上濟州文宣王釋奠祭儀及漢拏山祭儀 釋奠儀依各道界首官例; 漢拏祭依羅州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sup>62)</sup>
- ④ 太宗 18年 6月 28日: 禮曹啓: 濟州 漢拏山, 以諸山初祭日併祭之 教曰: 諸山既皆祭之, 獨此一山, 何不祭之 若祀典不載, 則不宜輕舉 前此, 濟州牧官無乃祭之乎 置之前規可也<sup>63)</sup>

① 明 太祖[洪武帝]가 조공하러 온 조선 사신들에 내린 御製詩로서 탐라를 題目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탐라가 「馬生龍種入天閑」, 즉 駿馬가 자라는 천하의 마구간[天閑]이라 여겨졌다. 明이 濟州馬에 눈독을 들여서 고려에게 貢馬 진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본도 牧胡의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② 濟州按撫使 吳湜(식) 등이 본도의 사정을 알리는 事宜狀(일의 마땅함을 조목조목 벌여 적은 書狀)을 조정에 올리고 있다. 여기서 한라산 四面에 17개 현이 있다는 것, 그리고 東西道에 靜海鎭을 두고 軍馬를 모아 방어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③ 禮曹가 漢拏祭를 羅州

61)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 있습니다. 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의 동서도(東西道)로 삼고, 정해진(靜海鎭)을 두어 군마(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고, 그리고 동서도(東西道)의 도사수(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목장(牧場)을 겸임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東西道)의 산(山)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牧使)가 있는 본읍(本邑)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62) 예조에서 제주(濟州)의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의식과 한라산제(漢拏山祭) 의식을 올렸다. 석전제 의식은 각도 계수관(界首官)의 예(例)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祀典)에 실고 봄 가을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63)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에도 제산(諸山)의 초제일(初祭日)에 아울러 제사를 지내소서.” 하니, 하교(下教)하였다. “제산(諸山)은 이미 모두 제사 지냈는데, 홀로 이 산만을 어찌하여 제사지내지 않았는가? 만약 사전(祀典)에 실려 있지 않다면, 가볍게 거행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보다 앞서 제주 목관(濟州牧官)이 제사지내지 않았는가? 그대로 두라. 전규(前規)가 가(可)하다.”

城山の 사례에 따라 祀典에 올리고 春秋에 제사할 것을 왕에게 아뢰고 있다. ④ 예조가 漢拏山祭를 지낼 것을 재차 건의하고 있다. 아마도 태조 16년 건의가 시행 안 되자 예조에서 다시 왕에게 건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한라산이란 명칭은 조선조에 들어서자 빈번히 사용되었고, 그것도 주로 국가 수호하는 신성한 鎮山으로 國家祭儀의 장소로서 중요시 되었다.

고려후기에 星主·王子가 神人의 후예로 지칭되고 있었다. 여기서 神人이란 仙人의 다른 이름이다. 神人은 이외에도 仙, 仙人, 神仙, 眞人, 天真, 山人, 雲人 등으로 다양하게 시적 언어로 표현된다.<sup>64)</sup> 이런 신인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처음 보인 것은 고려사의 공민왕 16년(1367) 때였다. 제주 牧胡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濟州宣撫使(선무사) 林樸(임박)은 다음과 같이 星主·王子들에게 말하고 있다.

(恭愍王)十六年, 爲濟州宣撫使, 樸至州, 謂其萬戶曰, 達達牧子, 喜反側, 君宜盡心撫綏, 勿令生事, 又謂星主王子曰, 君輩乃神人之後, 入新羅爲星主, 入本朝爲王子, 服事歷代, 歷代之待君輩, 亦甚厚, 君輩宜各一心服事, 勿與牧子扇變, 於是, 星主王子及軍民, 皆俯伏曰, 敢不唯命, 先是, 宣撫者率皆貪暴, 恣其侵漁, 民甚苦之, 牧胡因誘以數叛, 樸行至羅州, 取水盛瓮而歸, 雖茶湯不入口, 民大悅, 相謂曰, 聖人來也, 王官皆如林宣撫, 我輩何至叛乎, 然州人或有譏其載水者.<sup>65)</sup>

64) 李演載, 『高麗詩와 神仙思想의 理解』(아세아문화사, 1989), 153-156쪽.

65) 『高麗史』列傳 24卷 諸臣 林樸. [한글번역]: 공민왕 16년(1367)에 제주(濟州) 선무사(宣撫使)가 되었는데 임박(林樸)이 주(州)에 이르러 그 만호(萬戶)에게 이르기를, “달달목자(達達牧子)가 반측(反側)하기를 좋아하니 군(君)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무수(撫綏)하여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 하고 또 성주(星主) 탐라(耽羅)의 도수(島首) 왕자(王子)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곧 신인(神人)의 후예(後裔)인데 신라(新羅)에 들어와 성주(星主)가 되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 왕자(王子)가 되어 역대(歷代)를 복종하여 섬겼고, 역대 임금들도 또한 그대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각각 한 마음으로 복종하여 섬겨 목자(牧子)와 더불어 변(變)을 선동

선무사 임박은 星主·王子에게 너희들은 神人の 후예로서 역대 군주  
 개 일을 했고, 역대 왕들도 심히 후대를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  
 다하여 牧子들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성  
 ·왕자들도 엎드려 명령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부 관인으로부  
 星主가 「神人之後」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니 적어도 공민왕 16년  
 전에 성주·왕자들이 신선, 또는 신인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제주 내의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임박은 이런 생각을 이용하여 성주·  
 자들을 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기 星主의 명칭은 天仙界의 별들이 중심을 이루는 北斗  
 :星66)을 지칭했거나 북두칠성의 회전 중심이 되는 北極星에 유래한  
 !이 아닌가 한다. 북두칠성은 아니지만 高厚·高淸 등의 신라 조공과  
 :星의 출현이 서로 연관되고 있었다.

至十五代孫高厚高淸, 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蓋新羅盛時也 于時

(煽動)하지 말라.” 하니 이에 성주(星主) 왕자(王子)와 및 군민(軍民)이 모두 부복  
 (俯伏)하여 말하기를, “간히 명령(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리요.”라고 하였다. 이에 앞  
 서 선무(宣撫)하는 자가 거의 모두 탐폭(貪暴)하여 마음대로 침탈하니 인민(人民)이  
 심히 괴롭게 여겼으므로 목호(牧胡) 달달목자(達達牧子)가 자주 꾀어 반란을 일으켰  
 다. 임박(林撲)이 가서 나주(羅州)에 이르러 물을 취(取)하여 웅(瓮)에 담아 돌아가  
 고 비록 다탕(茶湯)이라도 입에 넣지 아니하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여 서로 이르기를,  
 “성인(聖人)이 왔다. 왕관(王官)이 모두 임선무(林宣撫)와 같으면 우리들이 어찌 반  
 (叛)함에 이르리요.”

3) 七星圖란 북쪽 하늘 큰곰자리(大熊座)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국자모양의 일곱  
 개의 별인 북두칠성을 본뜬 것이다. 중국에서는 七星을 天樞, 天璇, 天璣, 天權, 玉  
 衡, 開陽, 搖光이라 하여 앞의 4별을 주걱(魁)이라 하고 뒤의 3별을 지부(杓)라고 한  
 다. 주걱(魁)의 두별을 직선거리로 5배 정도 연장한 자리에 北極星이 있으며, 北斗七  
 星은 北極星을 중심으로 圓을 그리며 회전한다(「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編  
 纂委員會 編, 1979, 208-209쪽); 북두칠성은 위에서부터 ① 天樞·② 璇·③ 璣·④  
 權·⑤ 衡·⑥ 開陽 ⑦ 搖光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① 天樞부터 ④까지 魁(괴)라  
 하고, ⑤부터 ⑦까지를 杓(표)라 한다. 魁杓을 합하여 斗이라 하는데, 그 배열 모습이  
 마치 斗와 같기 때문이다(諸攝轍次, 北斗七星條, 「大漢和辭典」 1, 1984, 91쪽).

客星 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 曰王子 王命清勝出下 愛如己子 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sup>67)</sup>

客星이란 帝座를 뜻하는 별<sup>68)</sup>인데, 여기서는 신라에 내조한 賓客인 탐라 사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星象 때문에 長子 高厚는 星主로 임명되었다 한다. 이것은 당시 본도의 首長인 고씨의 長子가 星座와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고후 등에 관한 이런 설화적 담론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고려시기에 본도의 星主·王子가 자기들의 연원을 북두칠성에 두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또한 북두칠성은 천상세계는 물론 인간세계를 호령하는 「人君」에 비유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在地勢力인 고씨는 이러한 이 별의 상징성을 빌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본도 내외에 과시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성주 호칭은 星座에 관한 고대 중국의 관념에다 신선 사상이 결합되어 사용된 것이다.

고대 중국 천문서 星經은 北斗星[北斗七星]에 관하여 「北斗星 謂之七政 天之諸侯 亦爲帝車 魁四星爲璇機 杓二星爲玉衡 齊七政爲 斗爲人君號令之主 出號施令 布政天中 臨制四方」<sup>69)</sup>이라 하고 있다. 즉, 天上에도 地上의 人君처럼 사방을 호령하고 天中에 정치를 펴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북두칠성이다. 이것은 天上의 主人과 地上의 主人이 未分離된 「天人相關」의 전형적 고대 중국 사상의 표현이다. 여기서 「北斗七

67) 『고려사』 고려사 지리지 11, 전라도, 탐라현조.

6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修訂版) 卷3(大修館書店, 1986), 972쪽, 客星: 항상 나타나 않고 임시로 출현하는 별. [史記 天官書] 客星出天廷 有奇命. 李相殷,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86), 353쪽. 客星犯帝座: 客星이 별의 帝座를 침범하였다는 뜻으로 천한 사람이 天子를 침범함을 이룸.

69) 諸橋徹次, 北斗星條(『大漢和辭典』 5, 大修館書店, 1984), 454쪽.

星」의 「星」과 「人君號令之主」의 「主」가 결합해서 「星主」라고 略稱될 수 있다. 그러나 성주가 이런 星經이라는 고대 중국의 天文書에서 유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비슷한 언어로 北極星과 銀河를 각각 의미하는 「星宗」과 銀河라는 말이 있다.<sup>70)</sup> 여기서 星宗은 星主와 매우 비슷한 말인데 북극성을 지칭한다. 못 별들이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천체를 회전하고, 다시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니 둘이 모두 천상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성좌이든지 별로서 상징성을 가졌다고 하겠다. 하여튼 星主는 天仙界의 北斗七星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星主, 漢拏山, 그리고 神人 등은 고려시대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본도의 首長, 山, 그리고 三姓의 시조에 붙여진 호칭이라고 하겠다.

또한 북두칠성은 七星臺 전승의 연혁이 되고 있다. 칠성대가 孝宗 4년(1625)까지 濟州 城內에 石築 형태로 遺址로서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七星臺 在州城內 石築有遺址 三姓初出分占 三徒倣北斗形築臺 分據之 因名七星臺.<sup>71)</sup>

위 사료에서 주의할 것은 17세기 중엽에 칠성대가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遺址로서 그 일부가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니 북두칠성을 형상한 칠성대가 건립된 시기는 17세기 중기보다 훨씬 전대가 된다. 필자는 북두칠성을 받들고 칠성대를 세워서 어떤 祭儀를 지내던 시기를

70) 위의 책, 星宗條, 803쪽: 많은 별들의 중심을 이루는 북극성을 말함, [天象星圖] 北辰爲星宗; 星河條, 750쪽: 銀河를 뜻하며 天漢, 星漢, 銀漢이라고도 함.

71) 李元鎮, 「耽羅志」 古跡條 七星臺: 이원진은 孝宗 2년(1623) 濟州牧使로 부임하여 孝宗 4년까지 있었다. 이 책은 孝宗 4년(1625) 가을에 당시 제주의 석학 典籍 高弘進의 監校로 완성되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한글 번역]: 州城 내에 있는데 석축의 자취가 있다. 三姓이 처음 나와서 三徒를 나누어 차지하고 北斗星 모양을 본떠서 축대를 쌓고 나누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인하여 七星臺라고 불렀다.

星主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져서 제주를 지배하던 星主時代(고려 태조 21년[938]~조선 태종2년[1402])<sup>72)</sup>이었다고 추정한다. 이 시기 제주에는 星主라는 首領이 존재하여 그 정치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거주지인 州城이 天仙界인 北斗七星을 모방하여 지상에 설립된 신성지역이라고 믿어졌던 것 같다. 이런 신앙 형태가 조선전기 관찬 사찬을 막론하고 6종 문서들에서 본도가 天上界 神仙鄉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한다.<sup>73)</sup>

## V. 맺음말

본고에서 조선초에 저작된 관찬 지리서들인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사찬문서인 성주고씨가전, 장흥고씨가승, 그리고 영주지를 고찰하였다. 우선 이 문서들이 저작된 연대와 작자를 比定하였다. 관찬인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가장 먼저 저술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를 그대로 답습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찬문서들인 성주고씨가전, 장흥고씨가승, 그리고 영주지는 저작 연대와 저자를 달리하면서 약간의 논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72) 耽羅國太子 末老가 入朝하여 星主王子의 爵을 받은 고려 태조 21(938)부터 耽羅 星主·王子가 佐都知管·右都知管으로 개칭되었으며, 星主 高鳳禮가 印符(朱記)를 조정에 반납된 조선 太宗 2년(1402)까지 464년 간의 시기이다(『耽羅星主遺事』附錄 耽羅史年表,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 1979년, 587쪽과 595쪽 참조).

73)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 12. 그는 이 중심지가 갖는 인간에 대한 靈威力과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신성한 山(천상과 지상이 만난다)은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다. (2) 모든 신전 또는 궁전(더욱 연장하면 모든 성스러운 도시 또는 왕의 거주지)은 신성한 산이며, 그래서 중심지가 된다. (3) 세계의 中心軸(axis mundi)이므로 신성한 도시 또는 신전은 천상, 지상, 그리고 지옥이 만나는 장소로서 간주된다.



고에서는 6종의 관사찬의 문서들을 조사 검토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나열하는 것으로써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 세종실록지리지의 세종 14년(1432)년에 편찬되었으며, 삼신인 출생담을 다룬 세 개의 관찬 지리지 중에 가장 이른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三神人 出生譚(담)은 약간 字句의 수정을 거쳐 그대로 고려사지리지에 전제되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에 부록이 되어 있어서 민간에 공개되지 않은 책으로, 조선왕조 전 기간 동안에 세종실록지리지를 열람한 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 고려사지리지는 1449년 정월~1451년 8월 사이에 편찬되었고, 발간은 문종 1년(1451)이었다. 편자는 양성지였고, 세종실록지리지를 그대로 轉寫하였다. 고려사지리지의 三姓 출생담은 신화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으로 양분된다. 신화부분에서 고씨 후손인 高厚 등이 신라를 방문하자 왕이 高良夫 三姓에게 屋主·王子·徒上이라는 관작을 내렸다는 기사는 후세의 조작이다. 다음 탐라가 文周王 2년(476) 백제에 조공하였다는 기록부터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탐라국의 시조로서 삼신인 이야기는 고씨 시조를 비롯하여 三姓을 신격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은 中宗 25년(1530) 편찬되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이래 근 100년 이후에 나온 지리지이다. 이 둘을 비교 검토해 보면 사소한 문구의 차이 외에는 다른 점들이 없다. 삼신인에 관한 기사들에 관해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백년 사이에 발간된 세 책들인데 그 내용에 어떤 차이들이 크게 없다. 이는 조선시대에 일단 어떤 텍스트가 작성되면 후대인은 진적으로 그것을 墨守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들에게는 독창성보다도 원형 고수하는 「述而不作」의 정신이 우선적이었다고 하겠다.

- 성주고씨가전은 정이오가 태종 16년(1416) 7월 고득종의 청탁을 받

고 지은 사찬문서이다. 정이오는 유학자로서 삼신인의 출생담을 피이하  
다고 하여 믿으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신비성을 제거하여 가능한 소  
략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이 문서에서 제주도에 관한 地名들이 누락되  
어 있어서 후에 고득종의 불만을 산 것 같다. 그래서 후에 고득종 스스  
로 장흥고씨가승을 짓게 되었다.

• 장흥고씨가승은 세종 32년(1450) 高得宗이 저작한 사찬문서이다.  
그는 정이오의 성주고씨가전이 삼신인의 출생, 三女人과의 혼인, 그리고  
三姓의 거처 등이 누락 기술된 데에 불만을 가지고, 삼신인 행적을 자세  
하게 수록하여 장흥고씨가승을 지었다. 또한 그는 同知樞密院事(從2  
品)·漢城判尹(正2品)을 역임하여 고씨 가문에게는 문화적 영웅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가 이렇게 출세하게 된 배경에는 세종이 본도의  
독자성을 없애서 地方化하려는 중앙집권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었다.

• 영주지는 조선 정조 10년(1786) 제주 高鳳禎 등이 三姓祠 序次가  
良氏가 上位인데 대하여 불만하여 상소하고 있다. 정조는 이에 대하여  
제주목사들에게 三姓의 사정을 조사 보고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 문제  
는 장기에 걸쳐서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조는 재위 24년(1800) 제  
주목사 정관휘에게 三姓序次에 관해 증거될 만한 문권 수집을 명령하였  
다. 제주목사는 사건의 장본인들인 고봉정 등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을 요구했고, 이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성주고씨가전 등을 참조하여  
고씨 시조에 관한 행적에 관한 文卷을 제출하였다. 이것이 결국 왕에게  
열람되었고, 또한 왕에게 진상된 이 문서이기에 왕실문서 보관소인 璿源  
殿에 수장되었고, 그리고 1915년 장서각이 설립되자 여기로 이전되어 오  
늘에 이르게 되었다.

• 상술한 6종의 관찬사찬 문서들은 신선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神  
仙과 거주지 天仙界·地仙界·水仙界를 상징하는 神人, 北斗星, 瀛州,  
三神山, 碧波, 靑衣童子, 紫氣 등의 詩的 언어들인 삼신인 행적을 修飾

하고 있다. 이에는 이미 고려후기에 屋主·王子가 「神人之後」, 곧 신인 후예로서 국내외에 알려지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또한 漢擊山 명칭은 銀河水를 잡아당길 수 있는 高山이며, 이는 천선계와 地仙界를 매개할 수 있는 靈山이라는 신선사상에서 유래하였다.

· 고려기 본도의 首長 호칭이었던 屋主는 天仙界 北斗七星을 상징하는 道敎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北斗七星이 천상계와 인간세상을 호령하는 人君에 비유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는 작년(2005) 「고려기 탐라의 ‘屋主’와 ‘三神人’ 탐색」이란 논고를 마련하다가 성주고씨가전 등의 문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통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고를 빌어 상술한 6종의 삼신인에 관계된 관찬사찬 문서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심화시켜 보려고 시작했으나, 지금도 지식이 별로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신선사상과 송당본풀이 등의 무속 노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敍事巫歌가 三神人 설화의 원형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국문학 연구자들이 주장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런 국문학과 더불어 學際的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단지 조선초기 三神人에 관한 6종의 문서, 그 텍스트의 수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차후 민속학에서 주장하는 巫俗과 神人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가 되겠다. 또한 신선사상이 횡적으로 동시대의 다른 자료들, 예를 들면 詩文 등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종적으로 후대에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전혀 고찰 못했다. 이것도 차후의 연구과제가 되겠다. 모든 학술적 탐색이 작든 크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함으로써 본고를 마치려고 한다.

#### 주제어

三神人, 三姓序次, 神仙界, 瀛洲誌

Abstract

A study of Samsinin(三神人) in Jeju Island during Early Joseon Dynasty

Jin, Yeong-i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by investigating and examining 6 officially or privately compiled documents/geographies:

- The *Sejongsillogjiriji*(Geography in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世宗實錄地理志) was compiled in 1432(14th year of King Sejong, 世宗) and was the earliest among three official geographies which dealt with the birth story of three godlike persons. The birth story mentioned in this book was reprinted intact in *Goryeosa Jiriji*(Geography in History of Goryeo, 高麗史地理志) with modification of just a few words.

- *Goryeosa Jiriji* was compiled between January of 1449 and August of 1451 and published in 1451(1st year of King Munjong, 文宗). Yang Seong-Ji(梁誠之) compiled it reprinting the *Sejongsillogjiriji* without any modifications. The birth story on the origination of three family nam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mythical and historical. It's mythical part which says that when some descendants of Go family such as Go Hu(高厚) visited Silla(新羅), King of Silla offered three offices and peerages of Seongju(星主), Wangja(王子), and Dosang(徒上) to the three families of Go(高), Yang(良) and Bu(夫) was a later manipulation.

- *Sinjeungdonggugyojiseungnam*(新增東國輿地勝覽) was a geography compiled in 1530(25h year of King Jungjong, 中宗), 100 years later than *Sejongsillogchiriji*. No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geographies are found except minor phrasal ones. The above three books, *Sejongsillogjiriji*, *Goryeosa Jiriji*, and *Sinjeungdonggugyojiseungnam*, were published with one hundred year interval one another and however

showed no differences in their contents as far as they are concerned with stories about three godlike persons.

▪ *Seungjugossigajon*(星主高氏家傳) was a privately compiled document by Jong I-Oh(鄭以吾) with the request of Go Deug-Jong(高得宗) in 1416 (16th year of King Taejong, 太宗). As a Confucian, Jong I-Oh did not believe in the strange story of three godlike persons, so he wrote their birth processes as briefly as possible. Dissatisfied with its omission of the geographical destinations of Jeju Island, Go Deug-Jong wrote *Jangheunggossigaseung*(長興高氏家乘) by himself.

▪ *Jangheunggossigaseung* was a privately compiled document by Go Deug-Jong in 1450(32th year of King Sejong). He was dissatisfied with *Seongjugossigajeon* in which the birth of three godlike persons, their marriage with three women, and the residences of three families were omitted. This was why he wrote himself *Jangheunggossigaseung* in which the achievements of three godlike persons' lifetime were shown in detail.

▪ *Yeongjuji*(瀛洲誌) was a privately compiled document by Go Bong-jeong(高鳳積) and others, who probably were discontented with the situation in which the tablet of Ko family ancestor occupied the second place in Three Family Mausoleum(Samseungsa, 三姓祠) in 1800(24th year of King Jeungjo, 正祖). The King ordered the provincial governor of Jeju to collect the related documents of the three families. *Yongjuji* is a paper furnished to the governor.

▪ Six geographies/documents, officially or privately compiled, are filled with a belief in thought of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神仙思想). Such poetic words as Godlike person(神人), the Great Dipper(北斗星), Yeongju(瀛州), Three God Mountain(三神山), Byeogpa(碧波), Cheonguidongja(青衣童子), Jagi(紫氣) etc., which symbolize Taoist hermits and their Residences- Heaven hermit realm(天仙界), Earth hermit realm(地仙界), and Water hermit realm(水仙界), decorate three godlike persons' achievements of their lifetime. In latter period of Goryeo, Seongju and Wangja were recognized as the descendents of

godlike persons(神人之後)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the thought of Taoist hermit, Hallasan(漢拏山) was both a high mountain which can pull the Milky Way and a divine mountain which can mediate between Heaven hermit realm and Earth hermit realm.

▪ During Goryeo(高麗), the name of Seongju referred to the Great Dipper of Heaven hermit realm in the thought of Taoist hermit. As the Great Dipper was regarded as the center of Heaven world, Songju as King in Human world.

**Key Words**

three godlike persons, rank of three families, the world of three godlike persons, Yeongju document

교신: 진영일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사학과  
(E-mail: ynglchin@cheju.ac.kr 전화: 064) 754-2776)

최초 부고일 2005. 12. 8

최종 접수일 2006. 1. 19